

‘경북 원전시대’ 부활 신한울3·4호기 첫삽

尹 대통령 착공식 참석해 격려
공사비 11.6조, 신한울 노형 同
3호 2032·4호 2033년 준공 예정
연 720만명 고용·지역업체 우대 등
대규모 경제 활성화 효과 전망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 위상

경북의 15·16번째 원전인 신한울원전 3·4호기가 건설허가를 취득하고 30일 착공식과 함께 첫 삽을 들었다. 이번 착공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양급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국회의원, 울진군수, 한전 사장, 한수원 사장, 두산에너지빌리티 회장,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신한울3·4호기는 전기 출력 1400MW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

으로 총공사비 11조6000여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원전건설 사업이며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1·2호와 같은 노형의 원전이다. 또한 같은 노형의 원전이 앞서 아랍에미리트(UAE)로의 수출에 성공했고 최근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신한울3·4호기 건설허가는 신청 1년여 만인 지난 2017년 심사가 중단된 후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7월 건설사업 재개를 선언하면서 심사 재진행했다. 신한울3·4호기는 2032년 및 2033년에 각각 준공할 예정이다.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으로 불리는 신한울3·4호기 공사착공은 약 11조 6000여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8년 동안 연인원 약 720만명 고용창출 효과, 지역업체 건설 참여우대로 경기 활성화, 인구유입 등 국내 원전 업계에 많은 일감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스1

경북 동해안은 중수로와 경수로 등 모든 원자로형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까지 위치하고 있어 원자력산업 및 R&D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전 세계 추세인 원전 세일즈 시대에

맞춰 경북도가 원전수출과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의 메카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신한울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을 계기로 경북은 국내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으

로 자리잡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으로 불리는 신한울3·4호기 공사 착공을 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다수의 일자리 창출로 경북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최대 원전 밀집지역에 걸맞게 원전산업을 넘어 원자력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

도, 품격 있는 ‘한류 세일즈’에 유럽 바이어들 훌쩍

이철우 도지사 기조 강연 펼쳐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안동 유치
통상교류·투자 확대의 장 열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연례 ‘2024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비엔나’ (2024 KOREA BUSINESS EXPO VIENNA)는 71개국 150개 월드옥타 지회의 한인 경제인과 국내 광역, 기초지자체 및 관계기관, 국내 기업인 등 3000여명이 참가했다. 지난 1981년 창립된 월드옥타는 세계 150개 지회에 7000여명의 정회원과 2만

7000여명의 차세대경제인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해마다 상반기에는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후반에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연다. 이번 ‘2024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비엔나’는 유럽 바이어와 네트워크 강화 및 수출증진, 한인 경제인과 국내외 기관과 기업 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운영하고 비즈니스-문화(한류)예술이 어우러진 품격 있는 행사로 진행했다. 첫날인 28일엔 월드옥타 임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막식이 진행됐다. 행사 기간에는 회원비즈니스 성공 사례와 진출전략을 주제로 통상세계화전략포럼과 국내 젊은 미술가들의 작품전과 ‘한국문화체험관’도 운영했다. 특히 오는 2025년 세계대표자대회 개최와 공동 추진을 위해 경북도, 안동

시, 세계한인무역협회와 상호협력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경북도와 안동시는 지난 4월 말, 개최 예정인 세계대표자대회의 안동 유치를 위해 월드옥타 사무국과 회원을 상대로 다양한 홍보를 펼쳐 유치에 성공했다. 내년도 행사 개최를 통해 안동의 문화와 역사, 유네스코 지정 관광지 홍보, 한인 동포 기업인과의 통상교류와 투자유치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29일에는 이철우 지사가 World-OKTA ESG Forum에서 ‘해외동포의 힘으로, 초일류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수많은 외침을 받던 원조를 받은 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분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경제 발전으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해 한

반도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 시대를 맞고 있지만 현재는 성장의 한계로 변영과 쇠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총칼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류 콘텐츠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려면 옥타 회원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의 큰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29일과 30일 이틀간 한국상품전시회 및 바이어 1대 1 수출상담회에서 경북은 총 15개 사(식품 6개 사, 화장품 3개 사, 생활용품 3개 사)와 안동 전시 홍보관(25개 사) 등 총 40개 사를 파견해 현장 계약 600만달러 등 성과를 거뒀다. 또 경북-전남 공동관을 구성해 개관식, 비전 선포식,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두 지자체의 공동협력 추진 성과를 유럽 오스트리아에서 활짝 꽃 피우는 영호남 동서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농기계자재 최신 기술·트렌드 ‘한눈에’

내달 2일까지 대구서 국제박람회
25개국 429곳 다양한 부대행사

국내의 농기계자재 분야별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규모 국제 농기계 전문 전시회인 ‘2024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자재 박람회 (KIEMSTA 2024)’가 30일부터 2일까지 4일간 엑스코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25개국 429개(국내 335개, 해외 94개) 농기계자재 기업들이 참여해 1902부스를 운영하고 첨단 농기계 등을 선보일 예정이며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스마트팜 글로벌 시장개척 세미나, 농업용 로봇경진대회, 발농업기계 현장교육,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수소트랙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용 AI로봇과 드론 등이

전시돼 미래 농기기술과 향후 유망품목을 살펴볼 수 있으며 자율주행 트랙터, 방제로봇, 발작물 일관화 기계 등 최첨단 농기계 제품과 산업의 발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국내 농업 관련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31일 부대행사로 △수출상담회(총 국내업체 32개 사, 해외 9개국 21개 사 참가) △스마트팜 글로벌 시장개척 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경품이벤트는 동서관 경품추첨 부스에서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추첨을 통해 진행되며 소형 농업기계(전지가위, 1단사다리, 농작업자 등) 10여종의 경품을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객들은 출입증 뒷면 스탬프투어(동,서관 각 1개소) 도장을 획득하면 경품에 응모할 수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역사·문화·풍경 속을 걷는 문경 여행의 꽃
문경새재도립공원

백두대간의 절경을 한눈에 즐기는 짜릿함
단산관광모노레일

국내 최초 문화 생태 영상 복합 테마파크
문경에코월드

문경 모든 여행을 담다

전통과 현대,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는
생생한 역사와 문화의 보고, 문경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하고
1년 내내 색다른 재미를 더하는 축제까지!
문경에 머무는 모든 순간이 추억이 됩니다.

Yes 문경
공정의 힘!

정치 목적으로 시도민 이용하는 TK통합 중단

예천군의회, 275회 임시회 폐회 현장확인 결과·행감 계획안 승인 행정통합 반대안 '천 의원' 발의 자족 신도시 건설도 지체돼 있어 밀어붙이기 행정은 균형발전 불가

예천군의회는 3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21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제27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이동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



천군 농업직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재길 의원이 대표 발의(의원 전원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강영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며 "그러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두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체적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무시하고 시·도민을 방관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사일정에 앞서 신항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20년간 준비해 온 10만 자

족 신도시 건설도 지체돼 있다"면서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성급하게 추진하는 지역통합은 지역균형발전에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북도시사와 대구시장, 정부는 지금이라도 분열을 조장하고 화합을 저해하는 하향식 통합 논의를 중단해 달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중단 촉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상주시의회, 바른 시정으로 시민 불편 타파

다음달 6일까지 제229회 임시회 3회 추경 처리·내년도 업무보고

상주시의회는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2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과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등을 처리하고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기정예산 대비 1억7475만원(0.01%)이 증액된 1조3149억7475만원을 심사했다.

또한 다음달 6일 제7차 본회의까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며 5일 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 안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 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8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경숙 의장은 "2025년도 상주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내년도 시정추진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는 중요한 회기다"라며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선행돼야 할 현안 사업과 대구도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달라"라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경북도의회 의원들, 실효성 있는 경계지역 발전 '머리 맞대'

경계지역발전연구회 세미나 성료 생활SOC 관련 조례 제정 등 노력

경북도의회 경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는 지난 29일 '경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홍구 대표의원과 회원의원, 시·군 담당자, 경북도청 담당자,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최은영 책임연구원(동우이엔지)이 경북도 경계지역의 생활SOC 개선을 위한 주요 방안을 발표했다. 최 연구원은 교통약자 수용대응형 교통편의 제공, 지역별 생활SOC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재원 확보, 연계협



력을 위한 조직적·제도적 행정 기반 마련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특강에서 대구대학교 김병국 교수는 '국립공원의 지역사회 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팔공산국립공원이 대구

(44.9%)와 경북(55.1%)의 경계지역임을 강조하며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와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지속 가능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홍구 대표의원은 "연구용역 수행

기관이 현재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고려해 최종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힘쓸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 경계지역 생활SOC 관련 조례 제정 등 실효성 있는 경계지역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경북도 경계지역의 생활SOC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경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는 김홍구 의원을 대표로 김경숙, 이선희, 손희권, 권광택, 배진석, 박규탁, 박창욱, 김창기, 이우청, 임병하 등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 도경계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칠곡 도시발전연구회, 연구 용역 최종보고

왜관·약목 도시재생사업 관련 논의 주민 삶의 질 개선·경제 활성화 등

칠곡군의회 도시발전연구회는 지난 4월 16일 착수보고회 이후 이달 28일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기시행됐던 왜관읍 도시재생사업과 약목면 도시재생예비사업에 대해 분석해 추후 시행될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연구 결과는 입법활동과 정책 대안 제시 등 향후

의정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태희 대표의원은 "쇠퇴하는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향후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더 살기 좋은 칠곡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칠곡군의회 도시발전연구회는 김태희 의원을 대표로 심정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경희, 이창훈, 권선호, 오용만, 박남희 등 총 10명의 의원이 연구단체에 참석하고 있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군위군의회, 임시회 군정 질문 알찬 마무리

군위군의회는 제285회 임시회 중 지난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4일간 35건의 군정 질문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영숙 부의장은 저수지 내의 미분용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보상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 순차적으로 미분용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을 확인했다.

이어 박운표 의원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횟수 부족으로 식당 운영 주민들의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부패 및 악취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내년부터 8개 읍·면 전체 주 3회 수거할 계획으로 원가 조사 용역 실시 중이며 업체와 원활히 협의해 수거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홍복순 의원은 군위군의 탄소중립 이행 계획에 대해 질문했으며 군위주민의 탄소중립 인식개선을 위한

'탄소중립 전도사' 활동 계획 수립과 내년도 군위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수현 의원의 위천 테마탐방로 데크노선 폐쇄 이유와 운영 계획 관련 질문에 15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물인 데크 시설을 재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장철식 의원은 마을만들기사업의 획일화 및 과일 등에 대해 지적했고 사업 취지에 맞도록 자율적이고 주민 주도형의 사업 추진과 사업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서대식 의원의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야구장 활용 홍보 방안 관련 질문에 글로벌 에이시티로서의 집중 효과가 있고 군위에 대한 외지인의 관심을 제고하는 다양한 형식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안동장터 방문해 응원·격려 농산물 판로·소득 확대 힘써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9일 서울의 중심인 서울광장에서 열린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

터 '왔니껴 안동장터' 행사장과 성동구 소재 안동빌딩의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방문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9명은 안동시가 서울에서 처음 주관하는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인 '왔니껴 안동장터' 행사장 80여개의 부스를 찾아 지역 농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는 생산자 단체와 관계 공무원을 격려했다.

이어 안동빌딩 1층에 설치된 농축특산물 직거래장터를 방문해 새롭게 개장한 판매장을 점검하고 담당자로부터 사업 현황과 운영 실적을 보고 받았다.

안동시 농축특산물 직거래장터는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를 중심으로 지역 내 7개 지역 농축협이 참가하며 판매장 내 안동존을 별도로 설치해 안동의 축제 및 관광지 등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다른 매장 차별성을 뒀다.

김상진 위원장은 "직거래 장터가 농가와 업체의 소득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기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동시 지역 농산물의 다양한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

경상투데이 캠페인

저출산 극복

경북형 새늘봄

<p>조기퇴근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MOU) 근로자 임금 보전 각종 지원사업 우대 및 환경개선사업 시행 	<p>학교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최초 교육청·도협업모델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AI 기반 돌봄 순환버스 운영 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p>심야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봄 서비스 24시 어린이집 아픈 아이 긴급 돌봄 24시 응급치치 편의점
--	---	---

▶ 온종일 안전 돌봄 시스템 구축 ◀

저출산 극복에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북형 한우산업 발전 위해 '힘'

대경 한우협, 道 축산정책과 등 민관학연 연계 강화 MOU 체결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머리 맞대' 농가 경영 안정·생산·경쟁력 UP

경북도는 지난 29일 도청 안민관 2층 중회의실에서 경북도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학·연 다자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민·관·학·연 연계 강화를 통해 경북 한우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경북도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약 참여 기관은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 경북도 축산정책과(경북축산기술연구소), 경북대학교 미래동물자원연구원, (사)한국축종개량협회 경북·대구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대구·경북지원, 농협경제지주 경북본부 등 6개 기관이다.

협약 기관들은 지속 가능한 경북형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 밀착형 과제 도출과 아젠다(agenda)를 설정해 현장형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마련



련해 경북도 한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 활용해 상호 간 공동 번영 및 우수 증진이 되도록 유기적인 협력 강화, 우수 연구 인력 및 교원 교류와 인프라 공유를 통한 공공 인재 혁신역량 강화,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공동사업 발굴 및 종합계획 수립, 목표와 일치되는 공동의 업무 수행 활동 강화 등이다.

이번 다자간 업무협약식을 통해 한우

협회 대구·경북도지회는 생산자단체 본연의 역할인 대정부 및 국회 농정 활동은 물론 민·관·학·연의 업무 연계 강화를 적극 지원해 지속 가능한 경북 한우 발전과 농가 및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성대(사)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장은 업무 협약식에서 "오늘 다자간 업무 협약은 경북도 한우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생산자단체와 공공기관, 행정 및 연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

이라며 "한우산업과 한우농가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최대의 시너지를 얻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복정식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민·관·학·연 다자간 협약식을 시작으로 현재 한우 가격 하락·사료 값 상승 등 대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새로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道, 중소기업 에너지절감 원스톱 지원 '팍팍'

포항·경주·청도 7개 기업 선정

경북도는 국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7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기업 에너지절감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5월부터 공모를 통해 포항시(2개), 경주시(2개), 청도군(3개)에 있는 7개 중소기업에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3개월 동안 에너지 이용 실태와 손실 요인 등을 정밀 분석해 기업별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을 제시하고 설비교체 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진단 결과에서 도출된 저효율 설비에 대해서는 에너지절감이 뛰어난 고효율 설비로 교체해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기업 중 2개 사업장의 경우는 전력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한다. 이번에 설치된 계측장비를 통해 전력량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의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 선정 시 내년부터 지방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4월에 사업 수행 전담 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 본부를 지정하고 에너지 진단과 고효율 설비개선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김병곤 에너지산업국장은 "에너지 진단과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은 지역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물가·고임금 시대에 에너지 비용 상승과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교육청, 흡연·마약 예방 '최선' 내달 2일 학생·주민 대상 홍보

경북교육청은 다음달 2일 포항시에 있는 만인당 운동장에서 열리는 '2024 경북 학교체육 한마당' 행사에서 학생들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흡연과 마약 예방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흡연과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의 기회를 제공, 흡연 예방 부스에서는

흡연의 해로움을 알리는 포스터 공모전 우수작 전시와 교육자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흡연의 위험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마약 예방 부스에서는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청소년 마약 범죄의 사전 예방을 목표로 2024년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 웹툰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을 전시하고 뉴스포츠 터링을 통한 마약 중독 예방 실천 체험과 선서 등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퇴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북도, 착한기업·사회적기업 육성 성과 '역대 최고'

전체 매출액 지난해비 147억 증가 영업이익·일자리 창출 등 상승세 10-10클럽 등 자체 사업 효과 적중

경북도는 올해 사업 보고 기준, 경북도사회적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사회공헌 실적 등 사회적기업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기록했다.

전체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147억원 늘어난 5574억원을 달성했으며 인증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관련 조사 이후 최초로 20억원을 돌파했다.

상근 근로자의 숫자도 지난해 대비 7.8%나 늘어난 4412명으로 조사됐으며 사회적기업의 최대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취약계층 고용도 전체 근로자 수 중 2450명을 차지해 55.5%를 기록했다.

돌봄, 교육 등 사회서비스의 무상 수혜 인원은 지난해 대비 1만7000여명이 증가한 연간 10만6700명에 달했고 기업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한 금액 역시 147억원이 증가해 285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대비 201% 이상이 증가한 실적으로 역대 최고치의 상승 폭이다. 여성 대표자의 비중이 전체의 43%, 근로자 중 여성이 61%를 기록, 각각 역대 최고 수치에 이르러 사회적기업이 여성의 사회참여와 고용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도가 '규모 있고 견실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육성한 '10-10클럽'(매출 10억원, 고용 10명 동시 달성) 달성 기업은 72개이며 매출 10억원 이상의 기업도 최초로 100개를 넘어서 전체 기업 수 대비 30%를 돌파했다. 규모 면에서도 성장세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저소득 난치병 아동 치료비 생활비 지원 페스타(2021-2022년), 경북 해너 지원 클라우드 펀딩(2023년) 미혼모와 싱글맘 지원 특별 판매전(2023-2024년) 등 지역 사회의 의제에 대응하는 별도의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해마다 기획해 운영하며 지역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 진행한 저소득 싱글맘 돕기 특별 판매전의 경우 참가한 사회경제 기업들이 특

판전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10%를 기부, 경북 지역 미혼모와 싱글맘 20개 가정에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육아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 배경에는 경북도가 독창적으로 추진하는 자체 사업의 효과가 적중했다는 평가가 있다.

박동식 사회적기업협의회장은 "경북도는 10여년 전부터 '시장에서 성과 내는 기업,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기업'이라는 기조로 '10-10 클럽' 육성, B-corp 인증지원, 대기업 자원연계 지원, 우수·유망 기업 육성, 성장 단계별 교육·컨설팅 지원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들을 추진해 왔으며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도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꾸준히 이끌어 왔다"고 전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사회에 공헌하며 지역을 살리는 착한기업의 수도 경북을 위해 지원 정책 수립과 사회적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선도 모델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 독도에서 'I Love Dokdo' 외쳤다

도교육청, 국제사회 홍보대사 양성

경북교육청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57명을 대상으로 "2024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독도탐방"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독도재단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독도 탐방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독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들을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독도 영토 주권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지난 28일 안동시의버스타미널에 집결해 포항으로 이동한 뒤 독도재단 관계자로부터 독도에 대한 특강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저녁에는 포항 해양 문화를 체험하고 밤늦게 울릉도행 크루즈에 탑승해 이튿날인 29일 아침 울릉도에 도착했다. 둘째 날에는 울릉도의 주요 역사 유



적을 답사한 후 독도로 이동해 단체 사진 촬영과 'I Love Dokdo' 퍼포먼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독도 탐방 소감을 정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탐방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울릉도 내 안용복기념관과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등 독도의 역사와 관련된 장소를 방문한 뒤 포항으로 돌아오며 2박 3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탐방을 통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독도의 역사적 중요성을 깨닫고 독도 홍보대사로서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독도 사랑을 실천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월성중·경주정보고 총동창회

회장배 동문골프대회

일시 : 2024.11.12(화) 12:00

장소 : 경주 신리CC

주최 : 월성중, 경주정보(상업)고 총동창회

주관 : 수송골프회

접수문의

회 장	이승협(26회) 010-9413-7783
준 비 위 원 장	김수광(27회) 010-2717-3569
사 무 총 장	김영삼(32회) 010-2518-0303
사 무 국 장	김동수(36회) 010-8856-7100
수송골프회 회장	김학식(30회) 010-3520-8338

35억 짜리 청도 야간경관 조형물... “탁상행정 표본·혈세 낭비” 질타

군 위상 제고 vs 복지 홀시 '대립' 시민 "지역사회 내 기여도 의문" 군 "행복 추구 의미로 해석 바라"



청도군이 지역 미관과 군의 위상에 대한 사업으로 혈세 약 35억원을 들여 야간경관 조형물을 설치해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청도군에 따르면 유등교와 매전교에 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야간경관 조형물설치를 통해 지역의 미관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조형물 설치 공사에 착수했다.

설치 공사는 유등교 입구에 탑스텝게 열리는 감과 복숭아를 형상화한 철골 조형물로 청도군의 열정과 따옴표 피어난 눈부신 '결실'을 표현했고 매전교 중간에 설치하는 조형물은 청도를 상징하는 소의 뿔을 형상화해 항상 합치해 '비상'하는 청도를 표현했다.

해당 유등교와 매전교 조형물 및 경관조명 설치에는 총 35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다음달 20일 완공을 앞두고 있다. 군은 공사완료 후 유등교와 매전교가 지역 랜드마크로 부상하는 것은 물론 청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높이고 군의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주민들은 청도군이 지역 현안사항인 복지사업 등은 배제한 채 도시 경관사업 등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35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불필요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주장이다.

한 주민은 "현재 재정 자립도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86위로 하위 20%에 해당하는 청도군이 수십억원을 들여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이런 조형물이 과연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겠느냐"며 맹비난했다. 이어 "주위를 둘러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청도군이 경관사업에 치중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복지사업 등은 외면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유등교와 매전교에 설치된 조형물은 청도군민의 미래지향적인 열정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형상"이라며 "부정적인 시각보다 청도군의 비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의미로 해석해 달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하수 군수 취임 후 유등교와 매전교 등에 조형물 설치 공사를 포함해 4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경북소방본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대량위험물 취급·저장 시설 현장 점검... 인명피해 저감 노력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30일 화재취약시설의 겨울철 화재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철곡군에 소재한 대량위험물 취급·저장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했다.

겨울철 화재 안전 대책 일환으로 행한 이번 현장 점검은 대량위험물 취급·저장 시설 내 주요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화재 발생 사례 공유 등 관계인에게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 점검은 지난 28일자로 경북도 소방본부장에 새로이 취임한 박성열 본부장이 직접 방문해 실시했고 최원익 철곡소방서장, 소방본부와 철곡소

방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량위험물 취급·저장 시설 인직원 대상 안전교육 적극 참여 △철저한 소방시설 점검 △자위소방대의 화재 초기대응 역할 숙지 △정기적 소방 훈련 진행 등을 당부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화재 및 인명피해 발생 예방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노력이다"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 점검실시로 화재취약시설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주, 환경오염 사고 선제 대응 태세 정비

수질오염사고 대비 합동 방제훈련 민관 100여명 합동 모의훈련 펼쳐

경주시는 지난 29일 천군동 신라교 일원에서 수질오염사고 대비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경주시 환경분야 직원 및 경주시환경보전협의회 관계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실무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훈련은 신라교를 지나던 유류 운반 차량이 교통사고로 경유 약 100L의 엔진오일이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해 유출된 기름을 방제하는 모의훈련 방식

으로 진행됐다.

훈련 전 방제장비 전시와 시연을 통한 방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사고 발생 후 신고, 전파 및 초동 조치에서 2·3차 방제 후 하류부 기름 확산 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 방제작업 완료 보고로 훈련이 펼쳐졌다.

시 관계자는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해 열린 이번 훈련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훈련이란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환경오염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경주시를 만들어 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신진 기자wba112@daum.net

예천, 지역축제 안전관리 방안 마련 만전

농산물축제·축산물 소비촉진행사 등 1000명 이상 참여 행사 안전책 논의

예천군은 지난 29일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개최되는 2024년 농산물축제 및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제9회 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의 지역축제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개최되며 예천군 관련 부서장과예천경찰서, 예천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기관의 안전관리위원들과 축제·행사 주최부서가 참석해 축제와 행사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사장 인파 밀집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 상황 발생 시



조치방안, 축제장 안전관리대책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안전관리계획을 가결했다.

축제·행사 주최부서는 이날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안전관리 의견을 반영

해 축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축제는 많은 군민과 관람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여건에 맞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군

민과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모두가 공동의 사명감으로 축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상주시보건소, 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모의훈련 실시

초동대응요원 역할 교육 진행

상주시보건소는 지난 29일 대회의실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

을 실시했다. 생물테러는 인명 살상이나 사회 혼란을 목적으로 세균, 바이러스, 독소 등을 이용해 벌이는 행위이다. 이들 물질은 소량으로도 손쉽게 다수의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초동대응이 중요하다.

이날 모의훈련에서 참석자들은 생물테러 의심 사건 발생에 대비해 초동대응요원들의 역할을 숙지했다. 또 생물테러 대비·대응 및 초동조치에 대한 이론 교육과 개인 보호복(Level A, C) 착용, 다중탐지키트 활용법, 검체

이송 등 현장 대응훈련을 진행했다.

이금숙 질병관리과장은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평소 초동 대응에 대한 훈련으로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찬원 기자changwan12@naver.com

청송 치매안심센터, 지역 안전망 구축 '힘'

선도기관·가맹점 지정, 현판식

청송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2일과 28일 이틀간 안덕면사무소, 남청송농협안덕지점, 청송농업협동조합 파천지점, 진보안경원 4곳을 치매안심센터도기관 및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치매안심센터도기관은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는 기업 또는 기관을 의미하며 치매안심가맹점은 지역사회의 총체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편의점, 음식점 등 개인사업자가 참여하는 치매 친화 사업장이다.

청송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센터도기관 7개소와 치매안심가맹점 5개소를 지정해 올바른 치매 정보 제공과 치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동해 왔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들은 방문객들에게 제공한 치매 파트너 리플릿과 치매안심센터 홍보 책자를 비치하고 치매 관련 자료 홍보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070604-중-326호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한다

장정불로단(壯精不老丹),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처방을 가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진액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리 활성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이 약해진다. 이에 따라 신체조직과 장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및 근육은 건조해지며, 뼈도 성글어진다.

결국 몸의 여기저기가 아프고,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며, 정신적인 피로까지 호소하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생명현상의 기본 물질인 정기 신혈 진액의 소모로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방 치료는 소모된 기

혈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장정불로단을 복용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만성피로와 성욕감퇴의 경우 몸이 가벼워지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 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

으며, 흰머리, 잔주름, 피부 탄력 저하, 성욕 감퇴 등의 노화 현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중풍 후유증의 병후 관리나 정액 부족 등으로 인한 남성 불임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잘 낫지 않는 전립선 질환의 경우 이수비노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정불로단은 일반 탕약이 아닌 환약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2번 복용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체질과 나이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법이기에 때문에 중년 남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510
www.kangnamh.co.kr

경주시, 주한태국대사와 APEC 준비 본격화

“봉사의 온기로 경주를 더욱더 따뜻하게”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신임 대표로 정석호 이사장 선임

타니 썬랏 대사, 주 시장 예방 동남아와의 협력 확대 방안 모색 화백컨벤션센터·사적지 등 확인



이날 주낙영 시장은 타니 썬랏 대사 정석호의 준비 과정에서 태국의 경험과 노하우가 공유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APEC

주낙영 시장이 지난 29일 타니 썬랏 (Tanee Sangrat) 주한태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타니 썬랏 대사는 LA 총영사, 주베트남 대사, 주미 대사 및 태국 정보부 국장을 역임했으며 올해 4월 주한태국 대사로 부임했다.

태국은 한국과 함께 APEC 창설 회원국으로 지난 1989년부터 APEC 활동을 이어왔으며 2003년과 2022년 두 차례 APEC 의장국을 맡은 바 있다.

타니 썬랏 대사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내년 태국 대사관의 경주 방문을 위해 경주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대사님께서 태국 외무부 대변인으로 APEC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이끈 경험이 경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타니 썬랏 대사는 이날 APEC 정상회의의 메인 행사장이 될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와 숙소 및 불국사를 비롯한 경주의 주요 사적지를 둘러봤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사단법인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9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대표로 정석호(사진) 이사장을 선임했다.



이사장 선임은 이사들의 호선을 통해 이뤄지며 임기는 3년으로 이날 이사장 및 이사 선임으로 새로운 임원 구성을 완료하고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정석호 이사장은 지난 2002년 제4대 경주시의회 의원에 당선된 후 3선 의원으로 경주시의회 6대 의장을 역임했

으며 현재 경북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및 경북 교통문화연수원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정석호 이사장은 “제5대 이사장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경주 지역에서 그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역 곳곳에 긍정적인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어 따뜻하고 행복한 경주 만들기에 기여해 왔으며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경주시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더욱 고민하고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신라복·익선관 착용한 새내기 공무원들 ‘열정으로 불끈’

제18회 경주농업대학 졸업식... 93% 수료

6개 직렬 20명에 임용장 수여 시민 행복 위한 공직의지 다짐



경주시는 30일 청사 내 대회의실에서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 공무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용된 신규 공무원은 2024년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54명 중 6개 직렬의 20명이다.

신규 공무원들은 전통 신라복과 청렴을 상징하는 익선관을 착용한 채 임용장을 받은 후 선서를 통해 시민의 행복을 위해 공직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신규 공무원 전원이 전통 신라복과 익선관을 착용하고 고지 형태의 임용장과 목민심서를 전달받는 이색 임용식은 지난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는 청렴의 상징인 ‘매미’의 날개를 닮은 익선관을 통해 공직자가 지녀야 할 덕목을 되새기기 위함이다. 또한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슬기롭고 지혜로운 공직자가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경주시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적인 NEO 천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시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신규 공무원들의 참신함과 열정이 절실하다”며 “천년의 역사를 담은 경주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경주시와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경주시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중 최연소 합격자는 2001년생으로 23세의 행정 9급 여성이고 최고령 합격자는 1972년생으로 52세의 행정 9급 남성이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귀농귀촌·치유농업·사과과정 등 3개 과정 100여시간 교육·실습

존친흥정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 종합평가를 통해 9명은 성적우수상을, 일년 동안 성실하게 다닌 교육생 45명에게는 개근상을 수여했다.

경주시가 지난 30일 농업인회관에서 제18회 경주농업대학 졸업식을 열고 11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주낙영 시장, 이동협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 및 졸업생 등 13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농업대학은 올해 3월 5일 121명 입학생 중 112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93%의 놀라운 수료율을 기록했다.

농업대학은 △귀농·귀촌(30명) △치유농업(37명) △사과과정(36명) 등 각 3개 과목별로 100여시간 동안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으로 진행됐다.

졸업식에서는 학생자치활동 공로로 각 과정의 학생회장 및 총무 5명이 시상장을, 사과과정 학생회장 1명은 농

업인회장은 이번 교육과정으로 전문 농업인으로 발전해 지역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시장은 “농업·농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줄 농업인으로 거듭날 것으로 당부드린다”라며 “경주시도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교과과정을 계획해 지속적인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경주농업대학 교과과정은 오는 12월 말 경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손동현 기자dogh0811@naver.com

감포공설시장, 쾌적한 쇼핑 환경 조성 ‘힘’

시, 3억 투입해 노후시설 개보수 104개 점포 창조 새것으로 교체

물, 수산물, 전복 등 특색 있는 상품을 판매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경주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감포공설시장 내 104개 점포의 창조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총사업비 3억원(도비 3000만원, 시비 2억7000만원)을 투입했다.

지난 1959년 개장한 감포시장은 감포항 인근에 위치한 전통시장으로 건어

주낙영 시장은 “다가오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많은 국내외 참가자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전통시장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가치를 보존하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아동 스스로 지역 변화 이끄는 친화정책 발굴 ‘눈길’

아동청소년 정책한마당 본선 성료 공감·논리·발전상 등 총 5팀 선정

팀(60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 후 정책 제안서를 제출한 19개 팀(48명) 중 제안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의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 5개 팀(10명)을 선정했다.

경주시는 지난 29일 청소년수련관 회의실에서 제2회 아동청소년 정책한마당 본선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 13일 참가를 신청한 25개

본선 당일 5개 팀은 정책 제안 배경과 문제 제시 이유, 해결 방법, 타 시·군 사례에 대해 프리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어 최종 심사를 거쳐 공감상, 논리상, 미래상, 지속상, 발전상 등 각 1개 팀을 최종 선정했다.

심사 결과 △공감상은 길건너 친구들 지킴이팀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교통환경 조성정책’ △논리상은 지키자 생명팀의 ‘불법주정차 OUT!’ △미

래상은 우리네팀의 ‘어두운 날에 반짝 반짝’ △지속상은 설*주의 ‘역사문화도시 경주, 문화외곽지역 스마트도시관 확대’ △발전상은 김*원의 ‘누구나 대중교통 이용할 권리를 찾아 대중교통 활성화!’가 결정됐다.

이날 시상은 단순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닌 해당 정책 주제에 어울리는 상 선정에 주안점을 뒀 참가한 모든 팀이 1등인 대회를 만들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어린이 보호

주정차금지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앞서는 경주

2021년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휴일·공휴일 상관없이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 12만원(승용차 기준)

경상투데이는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도시 경주 만들기에 동참합니다

市, AI·가상세계 활용 우수 아이디어 찾는다

내달 1일 동대구벤처밸리 일대서 미디어 뉴테크 대전 행사 개막 세미나 등 풍성한 프로그램 준비 산업 활성화·기업 투자 모색 발판



대구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는 '2024 미디어 뉴테크 대전'이 다음달 1일, 2일 이틀간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 동대구벤처밸리 일대에서 개최된다.

'2024 미디어 뉴테크 대전'은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된 '대구 뉴테크 융합지원 창작플랫폼 구축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지역 뉴테크 산업 활성화 및 지역기업의 투자 유치방안 등을 모색하는 행사이다.

다음달 1일 오후 2시 개막행사와 함께 기업 및 전공자 뿐만 아니라 일반시

민 모두가 인공지능, 가상융합, 블록체인 등 뉴테크를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경진대회, 세미나, 투자상담회, 전시부스, 체험행사 등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뉴테크 우수기술 및 미래인재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는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는 창업 아이디어 경연, 대학생 및 청년은 뉴테크 융합 프로젝트를, 초·중·고 학생은 인공지능 모션 드로잉과 AI음악코딩 실력을 겨루게 된다.

뉴테크 세미나는 유튜브 채널('2024 미디어 뉴테크 대전')을 통해 뉴테크 기술동향 및 스타트업 투자유치 전략 등을 내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개막식 기초강연으로 정지훈 DGIST 교수가 'AI, 블록체인, 빅데이터가 바꾸는 뉴테크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전시부스는 '대구 뉴테크 융합지원 창작플랫폼 구축사업' 참여기업 및 대학 프로젝트팀 등 25개 팀이 'AI 모션 드로잉', '증강현실',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 등 프로젝트 성과를 선보인다.

편집 메이크업, 사진, 퍼스널컬러 진단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JOB스퀘어도 마련해 지역 청년 취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체험행사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내에서 가상현실·혼합현실·모션캡처 체험이 준비됐고 야외부스에서는 AR 디스플레이, 미디어타워 등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마련돼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http://nt-fai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최은백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미디어 뉴테크 대전이 인공지능, 가상융합을 활용한 우수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의 기회가 되고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체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달성 휠체어테니스단, 6연속 금메달 '쾌거'

전국장애인체전 테니스 단체전 부산 대표와 결승전서 압도적 승리

달성군 휠체어테니스단이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경남도 일대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남자 테니스 단체전 금메달을 거머쥐며 6년 연속 금메달 획득을 알렸다.

달성군 휠체어테니스단은 지난 28일 경남도 창원시 시립테니스장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남자 테니스 단체전에 대구 대표로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선수단은 준결승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경기도를 이기고 결승에 진출하는 기쁨을 토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준결승 단식 1경기에는 오상호(44, 달성군청)가 안철용(44, 경기도장애인테니스협회)을 1세트 6대 4, 2세트 6대 2로 이겨 완승을 거뒀고 이어진 단식 2경기에서는 한성봉(39, 달성군청)

이 이지환(44, 스포츠토토코리아)과 1세트 2대 6, 2세트 6대 4, 3세트에서 6대 6으로 치열한 접전 끝에 타이브레이크를 거쳐 7대 4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결승에서는 부산 대표팀과 만나 압도적인 실력으로 모든 세트(단식 1경기 2대 0, 단식 2경기 2대 0)를 장악하며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달성군 휠체어테니스단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을 제외한(미개최) 올해까지 전국장애인체전 6회 연속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게 됐다.

최재훈 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장애인체전에서 달성군 휠체어테니스단이 눈부신 팀워크를 보여줬다. 전국장애인체전 6연패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거머쥐고 대구시와 달성군을 빛내준 선수단에 무한한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달성군의 자랑스러운 대표팀으로서 다양한 활약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장종찬 기자jongchan2114@naver.com

군위, 효과적인 규제개혁으로 지역 경쟁력·주민 삶의 질 UP

규제개혁위 신규 위원 5명 위촉 자치법규 개정안 규제 신설 논의

군위군은 지난 30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과 함께 회의를 열고 규제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 5명을 신규 위촉했다.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에 위촉된 신규위원 5명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돼 규제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 등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게 된다.

이후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인 김희



석 부군수를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자리한 가운데 부군수실에서 진행됐으며 자치법규 개정안의 규제 신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진열 군수는 "군위군 규제개혁위

원회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위군은 신설 및 강화 규제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등록규제 일제제비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대구보건대 치기공학과 학생들이, 뛰어난 치기공 실력 '인정'

부산 치과기공사회 국제학술대회 실기 경진서 금·동상 획득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학과는 지난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BDTEX 2024 부산시 치과기공사회 국제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의 학생 실기 경진대회에서 금상과 동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부산시 치과기공사회가 주관하는 학술행사로 최신 치과기공 기술과 기자재를 소개하며 치과기공 전문가와 학생들이 기술을 교류하는 자리였다.

경진대회는 영남권 7개 대학(김천대

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마산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수성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의 치기공학과가 참가했으며 '석고조각 치아형태'와 '악상업 치아형태' 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수상자들은 최주영 교수의 지도 아래 석고조각 치아형태 부문에서 박사

회(30) 치기공학과 2학년 학생이 금상을, 이정은(21) 3학년 학생이 동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다.

정효경 학과장(54)은 "우리 치기공학과는 반세기 넘는 역사를 가진 명문 학과로 우수한 실습 교육을 바탕으로 창의적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학생들의 실력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최상의 교육 환경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市, MZ세대 공무원에 사기 진작 휴가 '선물'

저연차 장기제직휴가 10일 신설 "즐거운 일터 만들기 위해 노력"

대구시가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장기제직휴가 10일을 신설했다.

장기제직휴가는 장기근속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재직기간별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동안은 10년 이상 재직할 공무원에게만 부여돼 1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은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도 장기제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MZ세대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저연차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노사협의회에서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이뤄낸 결과물이다.

시는 이 외에도 자유로운 연가·육아 시간 사용 분위기 조성, 점심식사 위주의 회식문화 정착 등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해 MZ세대 공무원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중근 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이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고 그 힘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 꾸준히 힘써 "다지고 싶은 즐거운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살국유사의 눈고장 군위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파워풀 대구와 함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영주시 '민선8기 공약' 체계적 이행 속도낸다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5개 분야 53개 최종공약 추진 중 예산 1조 조기추진 등 14개 완료 문제점 개선·보완 '누리집 공개'

영주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선8기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30일 시청 강당에서 열린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주요 공약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남서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소장, 공약사업 주관 부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공약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영주시는 지난 2022년 12월 5개 분야 53개 공약을 최종 확정 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4개 사업을 완료한 상태다. 주요 완료 사업은 △영주 예산 1조원 조기 추진 △인허가 민원행정 혁신으

로 처리기간 대폭 단축 △KTX-이음의 서울역 연장 운행 및 풍기역 정차 △장학금 및 등록금 지원 확대 △장기요양 요원(요양보호사 등) 처우 개선 △조례 제·개정을 통한 교육 지원 예산 대폭 확충 등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약 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남서 시장은 "민선8기 공약사업은 시민들과의 약속이자 영주시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며 "보고회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토대로 부진사업은 보완하고 정상추진 사업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체계적인 공약 이행 계획 수립과 이행 현황 관리의 성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 'SA 등급'을,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봉화군수기 축구대회' 지역사회 결속 강화

읍면·직장단체 10팀, 200명 참가 춘양면·봉화소방서 '최종 우승'

봉화군은 지난 27일 열린 제39회 봉화군수기 축구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봉화군체육회와 봉화군축구협회가 주최하고 봉화군과 봉화군의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읍·면과 직장단체에서 총 10팀, 약 200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기를 펼쳤다. 경기는 읍·면대항부와 직장단체부로 나뉘어 리그제로, 준결승 및 결승전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읍·면대항부 결승전에서는 춘양면이 물야면을 상대로 긴장감 넘치는 접전을 벌인 끝에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으며 공동 3위는 석포면과 명호면이 차지했다. 직장단체부에서는 봉화소방서가 최종 승리했고 춘양면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차지했다. 특별시상으로는 관객 수가 가장 많았던 석포면이 입장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선수상은 춘양면 임명기 선수, 우수선수상은 물야면 박병은 선수에게 돌아갔다. 이 외에도 춘양면 이석근 감독이 최우수 감독상, 임준기 심판이 최우수 심판상을 수상하며 대회를 빛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축구대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결속과 유대가 한층 더 강화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참가한 선수들이 보여준 열정과 스포츠맨십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건강한 축제의 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안동 '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 개최... 보편적 가치 공유·교류

내달 1일 오후 2시 국제컨벤션센터 루마니아·필리핀 등 국가 참여 예정

안동시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World Humanistic Cities Network)'의 정책세션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인문 가치에서 찾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안동시는 지방정부 최초로 지역학

'안동학'을 제정하고 세계역사도시연맹 가입 및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정책세션은 안동시의 이러한 인문학적 배경 속에서 보편적 가치를 탐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세션에는 루마니아 알바이올리아, 광주 동구정, 필리핀 다구판, 그리스 코린트 등 다양한 국가와 도시의 발표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안동여고 학생 240여명 및 가마쿠라-안동대 학생 50명, 서울대 규장각 외국인 학생 200

여명 등 다양한 인원이 함께해 인문학적 고찰에 새로운 세대의 생각을 더할 예정이다. 첫 번째 정책세션은 권기창 시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인문가치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 세션에서는 도시별 대표자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문 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력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정책세션은 '다양한 문화 속 인류 보편적 가치'를 주제로 다룬다. 이 세션에서는 다양한 국가와 도시,

민족에서 전승되는 다채로운 문화 속에 숨겨진 특별한 인문 가치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권기창 시장은 "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이러한 가치를 통해 점차 각 도시의 문제를 함께 고찰하고 비전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안동시민과 학생들이 인문학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오명수 기자oms727@nate.com

예천군 "마을 주민 안전하게 다리 건너요"

37억 투입, 독양교 개체공사 완료

예천군은 보문면 독양리 옥계천을 횡단해 독양2리 마을과 연결되는 독양교 개체공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7억원이 투입돼 지난 2022년 1월 실시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 12월 착공했으며 올해 10월 길이 85m, 폭 7.5m의 합성형 라멘교 형식의 독양교가 마침내 준공됐다. 오래된 기존 교량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평대 통행 차량이 제한되고 장마철 하천수위가 상승하면 교각 침식과 상부 슬래브 변형이 잦아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안전 점검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주민 불안이 커졌으나 이번 독양교 개체공사 준공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게 되면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됐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권기성 건설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조사와 안전 점검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양, 즐거운 노후 위한 '스마트 경로당'

연말까지 31개소 구축 완료

영양군은 지난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도창 군수, 안재범 대한노인회영양군지회장 및 읍·면 분회장, 관련기관 및 부서 담당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4년 스마트블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7억1400만원을 확보하면서 추진됐다. 군은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 사전규격, 입찰공고, 제안평가, 기술협상 등을 거쳤으며 지난 7일 조달청은 한국정보기술주식회사와 최종 계약 체결했다. 올 연말까지 스튜디오 2개소, 스마트 경로당 31개소를 구축 완료해 4주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업수행기관의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추진 일정을 보고한 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영양군 스마트 경로당은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해 스마트기기와 친해지기 쉬운 방법으로 인지향상 놀이 기기인 '스마트 터치 테이블'과 비대면 노래교실, 건강제조 등의 다양한 콘텐츠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화상회의시스템'을 설치해 활기차고 즐거운 경로당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오도창 군수는 "이번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통해 디지털 약자인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문경시, 어린이 등굣길 보행 '더 안전하게'

150여명 함께한 교통안전 캠페인

문경시는 교통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지난 29일 모전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등굣길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문경녹색어머니연합회 주관으로 시청, 문경경찰서, 문경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문경운전면허시험장과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모범안전자회 등 10개 기관·단체 회원 약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안전 관련 홍보용품을 배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 등을 안내하며 시민의

교통질서 의식을 고취시켰다. 최우선 연합회장은 "스쿨존 내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학교 앞 교통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국 시장은 "지속적인 캠페인, 교통안전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문경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배려 운전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분황사 원효문화대학 개강

2024.9.27~11.8(매주 금요일, 18:30) 분황사 경내

주최분황사 주관분황사, 분황사 원효문화대학 운영위원회
문의 054 742 9922/ 대상 일반시민(무료강좌)

- 09.27 원효스님의 생애와 사상 - 남동신(서울대학교)
- 10.04 분황사 모전석탑과 신라의 불탑 - 신용철(양산시립박물관장)
- 10.11 신라의 사리신앙과 사리공예 - 김연수(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 10.18 신라명필 김생의 필적을 찾아서 - 박홍국(전 위덕대학교)
- 10.25 신라불교와 보살 - 이주형(서울대학교)
- 11.01 분황사와 신라의 불상 - 허형욱(국립중앙박물관)
- 11.08 분황사에서 듣는 빈센트 반고흐의 삶과 예술 - 이태호(전 명지대학교)

세계 현악기가 만든 문화예술 화합의 장 성료

상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소개 내달 2일 오전 10시 상주시민문화공원에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고령군, 제6회 세계 현 페스티벌 각국 연주자의 독창적 음악 선택 개성 넘치는 연주에 관객 '호응'



가야금의 본고장 고령군에서 열린 '제6회 고령 세계 현 페스티벌'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다채로운 행사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 페스티벌은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들며 세계 각국의 현악기 연주자들이 고령에 모여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펼쳐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페스티벌의 첫날인 지난 24일 오전에는 대가야시장 야외공연장에서 본 공연을 앞두고 프린지 스테이지가 진행됐다. 본 공연에 오를 국내외 연주팀들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특별한 사전 공연을 선보였다. 오후에는 대가야문화누리 가야금홀에서 지난해에 이어 포럼이 열렸다. 포럼은 '고령의 세계 현축제에 거는 기대'와 '중동의 음악 문화'를 주제로 차재근(전)지역문화진흥위원장의 진행 아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인 본공연은 지난 25일 대가야문화누리 본홀에서 개최됐다. '유쾌한 클래식 진행자'로

잘 알려진 장일범의 해설과 함께 로사 가야금오케스트라와 한예종 고음악 앙상블 등 국내 정상급 연주팀이 무대를 빛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나임존함로 클로프&샤브카트 슈크롤라예브, 라오스의 모토 라오스 전통음악단, 이집트·튀니지·한국 아티스트로 구성된 마지카 밴드, 이탈리아의 켄트 코루다스 4중주 등 해외 연주팀이 세계 전통 음악의 매력을 선보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피날레 무대에서는 고령군 합창단과 모든 출연진이 함께 2024년 창작 합창곡 공모전 대상 수상작 김주원 작곡가의 '아름다운 그곳으로'를 연주하며 감동의 대미를 장식했다.

제6회 고령 세계 현 페스티벌의 마

막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26일에 열린 버스킹 '고령 현(絃)대인 버스커 프로젝트'는 고령 페스티벌의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해 주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현악기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 고령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자유로운 버스킹공연을 펼쳤다.

올해 처음으로 기획한 고령 세계 현 페스티벌의 연계행사인 '고령 현(絃)대인 버스커 프로젝트' 현악기팀들의 화려한 앙상블은 고령 대가야 생활환의 가을 풍경과 어우러져 한 편의 아름다운 음악 축제를 연출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연주와 개성을 선보이며 정중과 함께 호흡했으며 페스티벌을 찾은 관광객들도 버스킹 프로젝트

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신태은 고령문화원장은 "가야금의 고장 고령에서 열린 이번 페스티벌을 찾아주신 모든 관람객과 세계 각국에서 방문해 주신 연주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고령만의 독창적인 매력을 담은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남철 군수는 "세계유산도시 고령에서 열리는 세계 현 페스티벌은 전통 현악기를 통해 세계의 문화를 연결하는 특별한 무대"라며 "앞으로도 고령의 전통과 가야금의 가치를 세계로 널리 알리는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시켜겠다"고 밝혔다.

김일호기자hoyaf1515@daum.net

상주시는 생애주기별 복지정보를 상주시민에게 제공하고 복지기관·시설·단체의 정보교류 및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달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주시민문화공원에서 2024 상주시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한다.

2024 상주시사회복지박람회는 '시민과 복지를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상주시가 주최하고 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주시사회복지협의회, 상주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주관 하는 행사로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 만에 개최하게 된다.

박람회에는 40여개 기관·시설·단체가 참여하며 유공자 표창, 슬로건 퍼포

먼스, 플래시몹 등 개최식 행사와 함께 복지기관·시설에서 선보이는 화합 한마당 등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 행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부터 영유아, 아동·청소년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안내하는 전시장을 선보이게 된다.

강영석 시장은 "시민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복지 관련 기관 간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주시는 슬로건처럼 시민과 복지를 이룰 수 있는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창원기자changwan12@naver.com

성주군, 차세대 청년농업 리더 양성 매진

2030 청년농업인 양성 교육 개강 생성형 AI활용 능력 등 과정 구성

성주군은 젊은 청년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29일 농업기술센터 전산교육장에서 2030 청년농업인 양성 아카데미 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ChatGPT, 워튼(Wrtn) 등 생성형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한 농산물 홍보 이론 및 실습을 주제로 AI기반 아바타, 음악 디자인, 노코딩 챗봇, 숏폼 같은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에 대해 익히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총 6회 24시간에 걸쳐 실시되며 차세대 농업인이 갖춰야 할 디지털기반 역량 기반 조성 및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에 참여한 청년농업인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과 첨단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해 AI, 로봇 등이 중요한데 기술센터에서 선제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주섭 소장은 "급변하는 농촌환경에 농업이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AI 기술 교육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해 청년농업인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30 청년농업인양성 아카데미 교육은 지난 2019년 시작돼 현재까지 총 87의 교육생들이 수료했으며 농업 경영 능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청년리더 양성을 목표로 급변하는 농산물 환경에 대응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할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있다.

김일호기자hoyaf1515@daum.net

칠곡, 군민 곁에 찾아가는 지적현장 민원상담실 운영 건의사항 수렴·행정서비스 제공

칠곡군은 최근 지천면 심천2리 마을회관에서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을 찾아가 처리해 주는 '지적현장 민원상담실'을 시행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상담현장에서는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사전연락 없이 방문 시 업무담당자의 부재 등으로 생기는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전화로 사전에 상담일자를 예약하는 민원방문상담 예약제를 비롯해 주요 군정사항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재욱 군수는 "찾아가는 지적현장 민원상담실 운영으로 균형 방문 시 소요되는 군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중심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민들에게는 보다 편리한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 및 군정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홍달기자song0817000@naver.com

김천 노인회, 생활체육으로 지역 활력 '팍팍'

김천 게이트볼협회장기 대회 성황 총 7개 분회 21팀 140명 열띤 경합 우승 아포분회·준우승 지례분회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는 지난 29일 김천 덕곡체육공원 게이트볼장에서 제 7회 김천시 게이트볼협회장기 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가 주최하고 김천시 게이트볼협회가 경기 운영을 맡아 진행된 이날 대회는 총 7개 분회에서 21팀, 140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열띤 경합을 벌였다.

게이트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막대기 모양의 채로 공을 쳐 게이트를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천시 게이트볼협회장기 대회는 지역 어르신들의 체력 증진과 여가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다.

이날 대회는 김천시 게이트볼협회의 김산분회, 지례분회, 조마분회, 아포분회, 감분회, 능소분회, 어모분회



등 총 7개 분회가 참석해 그동안 연마한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우승은 아포분회, 준우승은 지례분회, 장려상은 감분회, 조마분회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부화 지회장은 "게이트볼은 신체 활동과 교류의 장을 열어주는 소중한 스포츠다"라며 "어르신들이 삶의 활력을 찾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태근 협회장은 "이번 대회는 출전한 모든 팀이 훌륭한 기량을 발휘하며

화합을 다지는 기회가 됐다"라며 "게이트볼이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세대 간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충섭 시장은 "게이트볼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대회를 넘어서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kgs5149@naver.com

구미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실시

월 최대 30만원까지 2년간 지급

구미시가 월세 지원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이에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시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월세주택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로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청년 신혼부부가 부담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월 30만원까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에 맞는 대상자에게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장호 시장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의분기자ub0104@hanmail.net

아리따움 경주점
대표 박 선 이

경주시 계림로 102
☎ 054-749-7979

아시아나스포츠
대표 최 병 진

경주시 화랑로 47
☎ 010-5588-9999

스멜스라이크브레드
대표 황 숙 향

경주시 광종길 24 127호
☎ 054-3523-1308

울진군,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 추진

온정~원남 간 국지도 건설 속도 2차로 연장 사업비 1295억 투입 내년 토지 보상... 2030년 개통

“모든 주민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인프라 조성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손병복 군수 주민화합 간담회 중)

울진군은 원자력소 국가산단, 수소도시 선정 등 굵직한 성과를 이뤄내며 울진군의 내일을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대단위 사업 추진과 함께 군이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 바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이다.

울진군은 주민들의 일상을 돌보며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나 방안 모색에 대한 노력도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조금씩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22일 온정~원남(매화) 간 국지도 69호선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타당성 재조사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통행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오지마을에도 2차로 건설이 추진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온정~원남(매화) 간 국지도 건설 사업은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에서 매화면 갈면리를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으로 2차로 연장(11.7km)에 총사업비 129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이후 실시계획 과정에서 터널 3개소가 포함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27.9% 증액돼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며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손병복 군수, 박형수 국회의원, 중앙정부, 경북도가 함께 69호선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힘을 모으고 다양한 모색을 위한 협력을 이어갔다.

박형수 국회의원도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이어 나갔고, 손병복 울진군수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분과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국지도 69호선 건설의 필요성으로 △국도 7호선의 대안 경로 역할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의 수소 생산도시 울진 △교통통행에 따른 접근성 향상 △우회도로 기능 등을 피력하는 등 발로 뛰었다.

또한 부산국토관리청과 경북도는 기존 국도88호선을 활용하는 방안 등으

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사업비를 1880억원에서 1295억원으로 줄이고 정책성평가 자료를 작성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군과 중앙정부, 경북도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까지 모두가 한뜻으로 함께 한 노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오지마을의 생활여건 개선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2024년 설계가 마무리된 후 오는 2025년에 토지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고 2030년에 도로를 개통할 예정이다.

손병복 군수는 “도로, 전기, 물 등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들의 인프라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서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상주기자ksj09102@naver.com

포항시, 청정에너지 도시로 ‘발돋움’

11월 12일 ‘국제수소연료전지 포럼’ 관련 전문가 머리 맞대 비전 구체화

포항시는 오는 11월 12일 포스코 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수소연료전지, 미래 수소 경제 일류 국가로의 이행’을 주제로 ‘2024 포항 국제수소연료전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포항의 수소연료전지 산업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 육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포항시와 포항테크노파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도가 후원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

세계적인 연료전지 전문기업 퓨엘셀에너지(FuelCell Energy)의 전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안토니 레오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해외 초청 특별 강연과 국내 주요 기업 및 연구기관의 주제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미래 포항시를 수소연료전지 기반 청정에너지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 논의를 중심으로



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행사장에서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1주년을 기념해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는 홍보관 및 투자유치 상담장이 운영돼 클러스터의 성과와 전망을 조명한다.

한편 이번 행사의 사전 등록 및 관련 문의는 ‘2024 포항 국제수소연료전지 포럼’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손동현 기자dongh0811@naver.com

울릉군·경북 사랑의열매·대저페리, 지역 경제활성화 ‘맞손’

취약계층 학생 울릉·독도 탐방 지원 복지시설 종사자·생활대장자 등 울릉도 입도시요금 감면 혜택 받아

울릉군은 지난 29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전우현, 이하 경북모금회) 및 ㈜대저페리와 함께 울릉군 한마음회관에서 울릉군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남한권 군수, 박일근 ㈜대저페리 울릉본부장, 전우현 경북모금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항·울릉도 간 초대형 초쾌속선 엘도라도익스프레스호를 취항하는 선사



인 ㈜대저페리는 그동안 취약계층 학생들의 울릉도 및 독도 탐방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민을 위한 수익 환원에 참여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북도 내 사랑의열매 기부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대상자들이 울릉도 입도시요금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됐다. 요금 감면 방법은 추후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

경산, 모두가 함께 즐기는 ‘만화축제’ 연다

11월 1·2일 서상길청년문화마을 독고탁을 이겨라 등 프로그램 진행

경산시는 오는 11월 1일, 2일 서상길청년문화마을에서 지역 만화·웹툰 작가와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2024 경산만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빛나는 만화마을’ 조성을 기원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화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상길청년문화마을은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으로 서상동과 삼남동 일대에 청년 창업 플랫폼, 근대문화 테마 거리, 생활기반 시설 등이 조성되면서 마련됐다.

앞으로도 오는 2026년까지 문화특화 지역 조성사업을 통해 ‘빛나는 만화마을’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축제 첫날인 오는 11월 1일에는 지역 대표 밴드 톨로드웨이와 금관악기 연주단 김형동 프로젝트가 함께하는 ‘툰(TOON) 콘서트 1일차’를 시작으로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실시간 이벤트 ‘모바일 컴쇼’가 마련된다.

개막식에서는 ‘꼬마폰대 독고탁’의

오프닝 공연과 함께 엘이디(LED) 조명 연출을 활용한 만화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이어 피터팬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피터팬과 함께하는 마법의 음악회’가 진행돼 어린이와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둘째 날인 오는 11월 2일에는 ‘독고탁을 이겨라!’, ‘독고탁 북 토크 콘서트’ 등 ‘꼬마폰대 독고탁’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이어지는 ‘툰(TOON) 콘서트 2일차’에는 카드캡터 체리, 디지털, 빵간머리 엔 등의 만화 주제곡을 부른 가수 정영진이 무대에 올라 관객과 만난다.

이 외에도 웹툰 체험존, 톰 플리마켓, 초코아트존, 슈팅클스 키링 체험, 3D펜 캐릭터 그리기, 케리커처, 한일 양국 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캐릭터 인생 넷·크로마키·캐릭터 ABR 조형물 등 포토존, 만화 RPG ‘서상길 13 만화 투어(TOUR)’, ‘서상 만화방’ 등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경산의 만화 자원을 널리 알리고 만화와 웹툰 작가들이 시민과 함께 즐기며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두용 기자hwondrumkakao@daum.net

영천새일센터, 노인복지시설 대표 워크숍

영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영천새일센터)는 30일 평생학습관 회의실에서 지역 노인복지시설 대표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역 32개소 노인복지시설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확대 및 기업 성장의 핵심인 노무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인적 네트워크 강화, 다양한 발전방향 모색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은 근로기준법 실무 해설 강의 등 노무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공인

노무사의 강의를 통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교육내용은 인사·노무 분야의 최신 법적 이슈와 근로자 간의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교육이 포함됐으며 특히 높은 관심사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 △연차, 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 노무 관련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나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은 영천새일센터(054-339-7765)로 문의하면 된다.

정석열 기자jsy92920@hanmail.net

청도군, 친환경농산물 우수성 ‘널리’

청도군은 지난 29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성 및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각남면 녹명리 죽바위 일원에서 ‘친환경 농업 체험마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하수 군수를 비롯한 박성곤 청도군의회 부의장 및 군의원과 어린이, 학부모, 1사 1촌 자매결연도시, 도시소비자와 마을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친환경 농업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각남면 죽바위 일원에서 열린 친환경 농업 체험마을 행사는 어린이와 도

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각남면의 명소 죽바위를 알리기 위해 녹명마을에서는 갈나무 발 유휴지를 코스모스·해바라기(3300㎡)경관 단지로 새롭게 조성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감 수확, 고구마 수확, 무 뽑기, 땅콩 뽑기 등 다양한 친환경 농업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지역의 우수한 친환경 농·특산물을 현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다.

김병일 기자artmong0@naver.com

금장대(중식당)

대표 이재희

경북 경주시 현곡면 동대로 224

☎ 054-771-9900

대구경북교육신문

대표 백재욱

경주시 초당길 5번길 3 (동천동, 2층)

☎ 010-7755-2933

(주)세영클린텍

대표 양창권

경주시 천북면 천강로 90

☎ 010-3539-9395

‘안동의 맛’ 제대로 통했다... 서울에서 ‘불티’

서울광장서 지역 농축특산물 판매 3일간 10만명 이상 구름인과 몰려 한우·사과 등 80개 부스 ‘대성황’ 안동간고등어는 없어서 못 팔아



안동시 최초로 서울의 중심 서울광장에서 선보인 농축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연일 수만 명의 인파로 북적였다.

장터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경기도에서 새벽차를 타고 방문하는 등 3일간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 안동 농축특산물을 구매했다.

권기창 시장이 이끌어가는 민선8기 안동시는 지역 농축특산물의 유통 혁신과 경쟁력을 확보, 전 세계로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격적이고 획기적인 판매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대도시 장터를 기획해 안동의 농축특산물로 직거래장터를 열었다.

안동한우, 안동사과, 안동산약 마, 안동생강, 안동고구마, 안동간고등어와 더불어 백진주쌀, 안동문어 등 50여종의 우수한 안동 특산물로 80여개 부스가 방문객을 맞았다. 안동시는 직거래장터의 최대 장점인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와 생산 농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펼치고자 참여 업체의 30% 이상을 생산농가와 작목반으로 채웠다. 우수한 품질에 저렴한 가격까지 더해

져 안동한우, 안동사과, 안동산약 마, 안동생강, 안동고구마, 안동간고등어와 찜닭 등 ‘왔니껴 안동장터’에 나온 품목 대부분이 매일 매진돼 밤마다 물량을 안동에서 추가로 가져와야 할 정도로 연일 수많은 인파로 넘쳐났다.

특히 안동한우와 찜닭, 간고등어를 사려는 고객이 40m가 넘게 줄을 서 대기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고 안동간고등어는 하루에 세 번의 추가 물량을 공급해야 할 정도로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을 실감하게 했다.

8개의 생산 농가로 구성된 사과작목반이 신고 온 12t가량의 안동사과가 전량 완판돼 시 관계자와 생산농가 모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기도 했다. 행사 이틀째 오전에 조기 매진된 한

고구마 생산 농가는 “내년엔 올해 세 배의 물량을 준비해 서울광장을 다시 찾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직거래장터 경험이 많았던 한 업체는 “지금껏 참여한 직거래장터 중 연일 완판해 매일 추가 물량을 공급한 것은 처음”이라며 “너무 힘들다”는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한편 안동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역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장터 흥을 돋우기 위해 신나는 탈놀이 댄스단의 춤판을 시작으로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 안동홍보사절단과 함께한 퍼레이드가 이어져 무대는 물론 장터 곳곳에서 안동을 알렸다.

안동시가 야심 차게 준비해 최초로 시작한 직거래장터 ‘왔니껴 안동장

터’.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기대 이상의 높은 성과로 참여 업체와 준비한 안동시 모두 내년을 어떻게 준비할지 행복한 고민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사장을 찾은 수많은 수도권 시민을 위해 내년에 더욱 규모를 키워 준비해주시길 바란다”며 성공적인 행사를 함께 축하했다.

권기창 시장은 “그동안 직원들과 함께 고민한 성과가 이번 행사의 성공으로 이뤄진 것 같아 뿌듯하다”라며 “안동의 농축특산물을 생각하면 ‘왔니껴 안동장터’가 떠오를 수 있도록 개선점과 건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더 많은 사람이 찾는 성공적인 행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명수 기자oms727@nate.com

청송사과축제 ‘더 즐겁게, 풍성하게’

내달 3일까지 청송읍 용전천 일원 다양한 체험·인기가수 공연 등

화려한 기술이 관람객의 박수와 환호를 자아낼 예정이다.

깊어가는 가을 정취와 함께 청송사과축제가 더욱 풍성하게 열리고 있다.

30일 개막한 제18회 청송사과축제가 ‘청송사과,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다음달 3일까지 청송읍 용전천 일원에서 펼쳐지며 수많은 방문객이 축제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축제 첫날인 30일에는 ‘제27회 청송문화제’가 열려 ‘청송도호부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청송문화제 개막식’, ‘소현왕후 추모 헌다례’ 등 전통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축제 이튿날인 31일에는 ‘제3회 청송황금사과배 전국고교장사 씨름대회’가 열리며 짜릿한 승부와 선수들의

이 외에도 청송골든벨 사과 올림픽 3종 경기, 도전-사과 선별 로도, 풀럼-사과난타, 만유인력-황금사과 찾아라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오후 6시부터는 개막 공연 ‘헬로콘서트 좋은날’ 녹화가 진행돼 장민호, 김연자, 마이진 등 국내 유명 트로트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구고 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이튿날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윤경희 군수는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된 만큼 가족, 친지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으러 오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영국 기자wdr121@hanmail.net

봉화고 ‘사제동행 국토순례’로 특별한 추억

청소년미래환경센터, 백두대간 생태환경 탐색 교육 마무리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는 최근 봉화고등학교 1·2학년 및 교사 등 188명과 함께 진행한 사제동행 국토순례 생태탐색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된 국토순례 프로그램은 봉화군 봉화역에서 출발해 백두대간협곡열차(V-Train)를 타고 태백시 철암역까지 봉화 및 인근 지역 생태환경 탐색을 하는 배경을 주제로 한 사제동행 프로그램으로 백두대간의 자연의 웅장함을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차여행이다.

특히 백두대간 협곡열차 종착지인

철암역의 탄광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석탄시설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석탄산업의 석탄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또한 기차여행이라는 컨셉으로 계란, 사이다 등 추억의 열차 간식, 기차도시락, 추억 전시회 등 운영으로 사제 특색있는 추억을 남기기도 했다.

김영무 센터 원장직무대행은 “봉화고등학교 청소년들과 교원분들이 사제동행으로 지역환경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되 기쁘다”고 전했다.

정희영 기자jhy4430@hanmail.net

구미상의 ‘기업발전협 간담회’ ‘기업체 네트워크 활성화에 지원’

구미상공회의소가 지난 29일 ‘구미기업발전협의회 10월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미기업발전협의회’는 매출이나 고용인원 면에서 구미를 대표하는 선도 기업 인사·총무 분야 부서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이날 임정호 협의회장을 비롯 구미기업발전협의회 회원, 구미시, 구미상의,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부는 유관기관 사업 소개, 2부는 외부전문가 초청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DGIST 공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2부 외부전문가 특강에서는 김태균 내과 전문의가 초빙돼 ‘성인병의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윤재호 회장은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체의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박익분 기자ub0104@hanmail.net

“다양한 분야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 다할 것”

김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김천복지재단에 성금 200만원 기부

김천복지재단은 지난 29일 시청 사회복지과 직원들로부터 성금 2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은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받은 인센티브 전액을 김천복지재단에 기부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했다.

손경애 사회복지과장은 “인센티브를 함께 고생한 직원들과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우수한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충섭 재단 이사장은 “업무에 열심히 임한 결과로 받은 인센티브로 통 큰 기부를 실천해 준 사회복지과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전달해주신 소중한 마음이 우리 이웃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천복지재단은 다양한 복지

목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김천형 SOS 긴급지원사업, 희망복지공동체지원사업, 맞춤형 후원결연사업 등을 실시하며 지역주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후원 문의는 김천복지재단 사무국(054-420-6736)로 하면 된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예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지원 강화’

예천군이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군은 올해 상반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공모전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과 창업 희망자들에게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설립 절차 등을 알리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창업공모전에서 선정된 2팀 중 ‘온통봄 사회적협동조합’은 청소년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인가받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마쳤으며 또 다른 선정 팀인 ‘케이청년 글로벌유통 협동조합’은 청년들이 주도해 예천농·수·축산물 유통과 수출 지원 등을 공동 홍보, 마케팅하는 협동조합 설립

을 앞두고 있다.

군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설립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1개소가 추가 지정되기도 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과 사업개발비 지원을 계획 중이며 이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최영종 지역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지역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더블에이치플랜

DHP

▶ 종합이벤트 기획·연출·진행

대표 현 병 희

경북 경주시 양정로 235(동천동) 덕양빌딩 7층 더블에이치플랜

Mobile : 010-3517-1105

포항시, 신산업 글로벌 시장 개척 집중... 서유럽 공략 나섰다

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참가 오스트리아서 기업 홍보관 운영 이차전지 등 혁신 산업 홍보 '힘' 韓 상품·기업 우수성 널리 알리



포항시가 글로벌 무대에서 미래 신 성장 산업역량과 지역의 우수기업 혁신 기술을 알리며 대한민국 대표 경제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시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인 2024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비엔나(KOREA Business EXPO Vienna)에 참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우수기업들과 포항시 홍보관을 운영했다.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 무역협회(World-OKTA) 주최로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유럽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한국 상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최대 규모의 행사로 진행

됐다. 71개국 150개 월드컵 대회 지회의 한인 경제인과 포항시를 비롯한 국내 광역·기초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내 관계자, 기업인, 현지 바이어 등 3000여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포항시는 홍보관을 운영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와 지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포항시 홍보관에는 무선충전자동차 충전시스템으로 혁신성을 인정받은 이스

온(드론), CES 2024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과학교육 설계 도구업체인 플로우스튜디오(교육플랫폼),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대표 우수 중소기업인 해동엔지니어링(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참여했다. 또한 유니코정밀화학(vcm필름), 엠에스파이프(철강), 씨티에이(누출감지센서), 미광엔텍(LED), 이도(한방

발효차), 노드텍스(스마트가스감지기), 캐럿퍼트(CAD S/W) 등 10개 포항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혁신 제품을 선보였으며 기업들이 보유한 우수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로 유럽 바이어들의 비즈니스 제품 상담과 계약 문의가 이어졌다. 시는 해외 바이어 및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부스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소품 형태의 오픈형 부스로 홍보관을 구성했으며 월드컵의 글로벌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바이어 사전 매칭 서비스 제공과 활발한 현장 마케팅을 펼쳐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시는 수출계약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지역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유럽 바이어들과의 네트워크 강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강덕 시장을 대표로 유관기

관 등과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포항시 대표단은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비엔나에 참가하고 있는 지역 기업체를 격려하는 한편 전 세계에서 참석한 한인경제인과 국내외 관계자를 대상으로 포항의 우수한 혁신 산업생태계를 알리는 네트워킹 활동을 펼쳤다. 특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강덕 시장은 지난 29일 개최된 개막식에 참석, 축사로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위상 증진에 힘써는 월드컵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이고 다양한 협력 활동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행사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글로벌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포항의 우수한 산업역량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 우수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글로벌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해 포항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동현기자dogh0311@naver.com

장미향 은은한 문경 감홍사과, 수도권 소비자 '입맛 저격'

농협유통 양재점서 시식·홍보 펼쳐 1만6000박스 4억원 판매 '인기몰이'



문경시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김범)은 문경농협(조합장 황준식)과 동문경농협(조합장 이효진) 주관으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문경 감홍사과 시식 및 홍보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문경 감홍사과의 맛과 품질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문경 감홍사과의 뛰어난 맛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에는 이정걸 시의장을 비롯한 7명의 시의원과 김대식 부시장 그

리고 시청 감홍사과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참석해 개최식으로 행사를 시작했다. 특히 행사 참석자들이 함께 펼친 문경 감홍사과 피켓 홍보 퍼포먼스는 내방객들의 주목을 받아 문경 감홍

사과를 알리기에 충분했다. 문경 감홍사과는 당도와 과즙이 풍부하며 단맛과 신맛의 조화가 뛰어나 '사과계의 명품'으로 불린다. 타지역에서는 재배의 어려움으로 감홍 재배

를 포기했지만 문경은 약 30년 전부터 감홍 재배를 시작해 현재 400ha에서 연간 1만2000t을 생산하며 전국 감홍사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주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문경 감홍은 장미향이 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더욱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행사장에는 문경 감홍사과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로 긴 줄이 이어져 1인당 2박스씩 구입을 제한했음에도 첫날 준비한 물량이 조기 매진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3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2.5kg 규격의 문경 감홍사과 1만6000박스가 판매돼 총 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관계자들은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김세현기자hyun0085@daum.net

안동의 미래 견인할 청년 위한 정책 '눈길'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접수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급

안동시가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하반기 추가 접수를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청년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313명이 신청해 299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2000만원의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이에 안동시는 10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하반기에 약 100명의 청년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39세(1984년 1월 2일~2005년 1월 1일 출생) 청년으로 올해 치른 어학 시험을 비롯해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한국사 등 다양한 시험의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되며 여러 시험 응시료를 합산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경북도 청년포털 청년e클럽(gbyouth.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험 응시증빙서류와 응시료 결제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오명수기자homs7227@nate.com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주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시행

월 최대 30만원까지 2년간

영주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

로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 시에는 신청일 이전 6개월간의 월세 납입 이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신청일의 다음달 30일에 본

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은 6개월분 월세에 대해 1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6개월마다 재신청해야 한다.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 게시된 사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취영기자jhy4430@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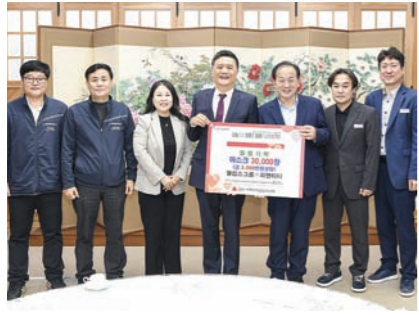
봉화장터 가을맞이 전 상품 15% 할인 행사

봉화군 농특산물 소평물인 '봉화장터'에서 가을맞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되며 봉화장터 회원은 송이, 한우, 사과, 장류 등 전 상품을 구매 금액의 15%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다. 할인쿠폰은 하나의 아이디어 1일 1회 사용할 수 있고 최대 3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봉화장터는 정경 봉화에서 정성껏 생산된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전자상거래 소평물로 다양한 소비처 확보 및 판로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향상을 지원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봉화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봉화장터에는 89개의 업체가 입점해 봉화에서 생산되는 잡곡, 사과, 송이, 한우, 장류, 참기름 등 다양한 농특산물이 판매되고 있다. 정취영기자jhy4430@hanmail.net

영덕군
Yeongdeok-Gun

환상의바닷길, 바다와하늘이 함께 걷는 길
함께 걸어요, 블루시티 영덕

(주)피엔티, 문경에 마스크 기탁



지난 29일 문경 가은농공단지 소재 웰킵스그룹 (주)피엔티는 문경시를 방문해 3000만원 상당의 마스크 3만매를 기탁했다.

기탁식은 신현국 시장과 박종한 웰킵스그룹 회장, 정은주 웰킵스홀딩스(주) 대표, 박종배 (주)피엔티 대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부된 마스크는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복지관 등에 배부돼 어르신, 취약계층의 환절기 건강증진 및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박종한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현국 시장은 "기부된 물품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봉화 봉성면, 고추농가 일손 돕기



봉화군 봉성면은 지난 29일 가을 수확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군청 및 면사무소, 봉성농협 등 직원 20여명은 봉성면 농가를 방문해 한해 고추농사의 마무리인 고춧대 뽑기, 멀칭비닐 수거, 영농부산물 정리 등의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농가주는 "공무원들과 농협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큰 도움이 됐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승호 면장은 "농촌지역의 인력감소와 고령화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경주서라벌라이온스클럽, 필리핀에 '온정 손길'

직접 구호 물품·생필품 전달

경주서라벌라이온스클럽의 회장인 손석순L과 역대 회장, 회원들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필리핀 빈민촌을 직접 방문해 나눔 봉사활동 및 구호 활동을 실시했다.

이들은 이번 봉사활동을 위해 헌옷 수거 및 의류 20박스과 200세대 분량의 의약품, 수건, 쌀, 모기향, 빵, 일상 생활용품 등 비롯한 1500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준비해 필리핀으로 출발했다.

행사 추진위원장이 서라벌LC 3부 회장 이승재L과 일행들은 현지 도착 후 태풍으로 인한 약천후 속 휴식도 없이 파야마스 빈민촌으로 향했다.

해의 봉사 2024-2025 슬로건으로 '젊음과 패기로 함께하는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이날 제46대 회장 손석순L 및 제36대 회장 정관호L, 직능부 총재 정경식L, 1부회장 권순호L, 3부회장 이승재L, 총무 홍주석L, 재무 남정모L, 이준목L, 손현열L, 임



성진L, 도정욱L, 박상언L은 행사가 준비된 아름다운 교회로 올라 마을 동장 격인 바랑가이 캡틴과 직원들과 마주했다.

이어 신나는 음악과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봉사 행사는 시작됐고 습하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 1000여명의 현지

주민들과 뜻깊은 전달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 써 아무런 사고 없이 봉사 행사는 잘 마무리됐다.

특히 태풍으로 준비한 행사가 취소될 뻔했으나 다행히 현지 빈민촌 주민들이 가장 필요할 때 필요한 구호

물품과 생필품을 잘 전달하게 됐다.

현지 송하중 선교사와 바랑가이 캡틴 및 직원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교인 및 행사 진행을 도와준 스태프들 그리고 해외봉사단 모두 서로에게 감사하는 뜻깊은 행사가 됐다.

손동현 기자doh0311@naver.com

안동 카누연맹, 저출생 극복 성금 '힘 보태'

안동시 카누연맹은 '저출생 극복 성금모금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저출생 극복 성금 100만원을 지난 29일 안동시에 전달했다.

전달받은 성금은 추후 저출생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사업비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연맹은 안동댐의 보조댐에서 카누 체험장을 운영하며 다소 생소한 스포츠인 카누를 시민이 보다 쉽게 경험하

고 친숙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했고 안동시 카누선수대 대한 지지와 격려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이날 성금을 기부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안동이 되길 바라는 소망을 전했다.

김재원 회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안동이 되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명수 기자oms727@nate.com



고령신협,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이불 '선물'



고령신협에서는 30일 대가야읍사무소를 방문, 지역 내 저소득계층에 차별이불 18제 (1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번 나눔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의

'온세상 나눔 캠페인' 일환으로 기탁 받은 이불은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김일호 기자hoyal515@daum.net

상주 모서면 자원봉사대, 맛있는 밑반찬 나눔



상주시 모서면 자원봉사대에서는 지난 29일 어르신 등 취약계층 20가구를 방문해 다양한 반찬 및 식재료를 전달,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창숙 대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을 담아 준비했다"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2@naver.com

동 정

행복지원동·직장어린이집 행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31일 오전 11시 행복지원동 개관식·직장어린이집 개원식, 오후 2시 용비관서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 교육에 참석한다.

21세기인문가치포럼 개회식 참석



권기창 안동시장은 31일 오후 2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1회 21세기인문가치포럼 개회식에 참석한다.

전물군경유족회 호국영령 추모제



박남서 영주시장은 31일 오전 8시 30분 충훈탑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전물군경유족회 호국영령 추모제에 참석할 예정이다.

제9회 금호읍 기쁨음악회 참석



최기문 영천시장은 31일 오후 4시 금호읍 행정복지센터 전정서 열리는 제9회 금호읍 기쁨음악회에 참석한다.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개관식



박현국 봉화군수는 31일 오후 1시 법전면 풍정리 245-1에서 열리는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개관식에 참석한다.

영양, 초등생 미디어 과의존 예방



영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달 동안 영양초등학교 및 입암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미디어의 건전한 사용을 위한 '미디어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슬기로운 미디어 사용'이라는 주제로 인터넷·스마트폰의 사용습관을 점검하고 과도한 사용에 따른 수면부족, 생활의 나태함, 가족과의 갈등, 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대안활동'을 탐색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휴대폰 쉼터'를 만들어 휴대폰 사용시간을 점검하고 스스로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태 기자tae66811@naver.com

신라문화원이 1994년 9월 17일부터 실시

달빛기행 30주년 기념

2024년 마지막 달빛기행

11월 2일(토) 오후 5시~9시

오후5시 | 월정교 남문 : 전수 및 문화체험 : 백등꾸미기, 타투, 신라복체험 | 오후6시 | 문화유산해설사와 유적답사 시작
계림숲(달빛 감성 아래 가아름, 해금연주) → 월성해자 야경(따뜻한 차와 막걸리 한잔) → 침성대 야경(선덕여왕 배우와 사진 한컷) → 월정교 남문 야경(달빛공연으로 마무리)

☎문의/의사/항 054-777-1950 | www.silla.or.kr | 주관 | 신라문화원 후원 | 경주시



문경시는 지난 29일 시 회의실에서 시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열분해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 추진 방향과 과업 내용에 대해 설명했으며 질의응답과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했다.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은 올해 환경부 국비사업에 선정돼 국비 62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24억원을 투입,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30t(일) 규모의 열분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오는 2025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해 같은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신한국 시장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활용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고령, 승마문화 발전·홍보 '힘써'



지난 26일, 27일 이틀간 대가야기마 문화체험장에서 제8회 대가야 국제기마무사승마대회와 제6회 대가야 스포츠마차 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마사회, 고령군 등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총 9개국 13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는 보사경기, 권승경기, 마차경기 등 총 8경기로 진행됐으며 일반부와 유소년부도 나눠 다양한 경기에서 실력을 겨뤘다.

각 종목별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가려 입상선수들이 상장과 시상금을 받았다.

이남철 군수는 "고령을 방문한 선수단을 환영하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승마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승마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령군은 학생승마체험,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 등 말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해마다 추진 중이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동국대 건학위, 미래불자 육성 '인재불사' 동참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증서 수여 불교동아리 40명에 100만원씩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증서' 수여식이 지난 29일 동국대 WISE캠퍼스 백주년기념관 D501호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한불교조계종 미륵암이 불교문화대학 불교동아리 '부루나'와 스마트시티융합대학 불교동아리 '바라나지', 글로벌사회경영대학 불교동아리 '다르마' 장학생 30명에게 장학금 100만원씩을 수여하고 대한불교서명종 원법사가 간호대학 불교동아리 '메타'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 100만원씩을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미륵암 주지 일공스님, 원법사 주지 해운스님, 건학위원장 돈관스님,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사무처장, 류완하 총장,



정각원장 철우스님 등이 참석했다.

류완하 총장은 "미륵암 주지 일공스님과 원법사 주지 해운스님께서 미래불자 육성을 위해서 내어주신 소중한 정성에 감사드립니다"며 "동국대 WISE캠퍼스는 건학이념의 구현과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

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학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은 지역사회와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장학금을 수여하는 건학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공헌과 미래불자육성 등 인재불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찰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장학생은 △템플스테이 △각종 법회 참석 △재능기부 등 해당 사찰과 다양한 스킨십을 통해 해당 사찰의 지역불교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손동현 기자dohg0311@naver.com

"청도지역 전체가 행복 희망공동체 되도록"

청도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 아동복지기금 100만원 기탁

청도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지난 28일 아동복지기금 100만원을 청도군에 전달했다.

손경애 회장은 "이번 기탁에 아동복지기금에 기탁으로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청도군 전체가 행복한 희망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하수 군수는 "청도군 평생학습문화를 선도하는 데 힘써 주신 데 이어 지역발전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 준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탁받은 성금은 지역 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금오재가노인통합센터, 어르신과孝나들이



구미시 금오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가 지난 20일 홀로 사는 어르신과 한화시스템 구미 사업장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천군 소재 대장경테마파크로 호도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날 행사는 한화시스템 후원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한화시스템 직원, 금

오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종사자들이 동행자가 돼 대장경테마파크 견학 및 도자기 체험 등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현종 센터장은 "한화시스템(주)의 취약 어르신을 위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외영 기자ub0104@hanmail.net

영양, 일월면 도계1리 마을회관 '문 활짝'



영양군 일월면 도계1리 마을회관에서 지난 25일 오도창 군수와 김영범 군의장, 윤철남 도의원, 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준공식을 개최했다.

기존 마을회관이 도계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편입, 영양군에서 4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지난 3월에 착

공했으며 8월에 건축면적 139.52㎡(42평) 규모로 마을회관이 준공됐다.

오도창 군수는 "마을회관이 일상에 지친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이자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상주삼백로타리, 스포츠 인재 지원



상주삼백로타리클럽이 최근 상주시 체육 꿈나무 선수 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16일 상주삼백로타리클럽은 상주시씨름협회 회장단과 지역 내 씨름 종목에 교기호 하는 학교인 성동초, 상영초, 남산중, 상주공업고 4개 학교의 선수들과 지도자 등 50명이 모인 가운데 선수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후원금을 전달하며 정기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상주시농구협회 회장단과 상산초, 상영초, 상주중, 상주여중, 상주여고, 상산전자고의 농구부 선수들과 지도자 90명을 위해 식사 지원을 하는 등 상주시 체육 꿈나무의 육성에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삼백로타리클럽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상주시 스포츠의 발전과 꿈나무들의 지원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예천, 일·가정 양립 '직장환경' 앞장



예천군은 지난 29일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과 돌봄공백 대책 수립을 위해 예천군 초·중·고학년, 미취학 자녀를 둔 공직자들과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인사 부서와 함께 협력해 평소 궁금해하던 육아 휴직 및 복귀규정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고충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해 더욱 의미 있는 자리였다.

김현자 주민행복과장은 "이번 소통간담회를 통해 실요성 있는 돌봄 정책을 마련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환경 조성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Advertisement for 'Gohyang Love Donation' (고향사랑기부제) in Yeongju. It features a large title '영주사랑을 전해주세요' and lists donation methods,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background shows a traditional Korean landscape with a pavilion and trees.



가쓰시카 호쿠사이, 후가쿠 36경 중 개풍패청 붉은 후지산, 우키요에.



가쓰시카 호쿠사이, 후가쿠 36경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 우키요에.

천년고도 경주서 만나는 日 문화의 모든 것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주최로 내달 1~10일 경주 지역 곳곳서 日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개최 호쿠사이 작품展·총영사 강연회 아즈마 아키 콘서트·다도 시연 자막 번역가 초청 강연회까지 한일 교류 활성화 증진 큰 기여



한일가왕전 출연자 '아즈마 아키'.



일본 다도.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은 한일 지역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에서 '2024 경주 JAPAN WEEK' (이하 재팬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팬위크'는 일본과 한국 지역 간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1998년부터 부산, 대구, 울산 등에서 11차례 진행해 왔다.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경주시,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가 주최하고 한일문화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우키요에(浮世絵)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 北斎)전'을 비롯해 '한일가왕전'에 출연으로 화제가 된 '아즈마 아키(東亜樹)'의 콘서트, 오스카 츠요시(大塚 剛) 주부산일본국총영사 강연회, 일본영화 자막 번역가 강민하 초청 강연회, 일본유학·JET프로그램·JLPT·EJU·워킹홀리데이 상담회, 일본 다도(茶道) 시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우키요에의 거장 가쓰시카 호쿠사이 작품을 만나다

첫 행사인 '우키요에 가쓰시카 호쿠사이전'은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갤러리(오전 10시~오후 6시)에서 전시한다.

'우키요에'란 에도시대(1603~1868년)에 유행했던 풍속화로 세속적이고 대중적인 주제(여인, 가부키, 풍경 등)를 목판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가쓰시카 호쿠사이'는 우키요에의 대표 작가로 생애 동안 3만장이 넘는 작품을 발표하며 19세기 유럽 인상

주의에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미국 잡지 '라이프' 선정 '지난 1000년 동안 세계를 빛낸 100인의 인물'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날 전시장에서는 우키요에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전시 개관식은 1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김석기 국회의원과 주남영 경주시장,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 내내 외 한일문화포럼 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일가왕전'의 엔카 신동 '아즈마 아키' 콘서트

'한일가왕전', '한일토크쇼'에 출연한 아즈마 아키의 콘서트는 2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경주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개최되며 일본 엔카를 비롯해 한국 트로트와 민요, 애니메이션 OST 등 다양한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콘서트는 초청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며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아즈마 아키 영상물에 응원 댓글을 단 시민 중 30명을 선정해 초청한다.

▲주부산일본국총영사 강연회 오스카 츠요시(大塚 剛) 주부산일본국총영사 강연회는 5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원효관 글로벌AC홀에서 열린다.

특히 '한일관계의 과거와 미래(예정)'을 주제로 38년간의 외교관 생활

을 되돌아보며 한일 관계의 역사, 과거와 미래에 대해 강연한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러브레터', '너의 이름은', '어느 가족' 등...극장용 일본영화 전문 '자막 번역가 강민하' 초청 강연회

7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강민하 일본영화 자막 번역가 초청 강연회'가 동국대 WISE캠퍼스 원효관 글로벌AC홀에서 개최된다.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감독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2004)', '원령공주(1997)', '이웃집 토토로(1988)', 이와이 슌지(岩井俊二) 감독의 '러브레터(1999)', '4월의 이야기(2000)' 등 지난 2000년대 한국을 휩쓴 인기 영화들뿐만 아니라 신카이 마코토(新海誠) 감독의 '너의 이름은(2017)', '날씨의 아이(2019)', '언어의 정원(2013)', 고레에다 히로카즈(是枝裕和) 감독의 '어느 가족(2018)', '태풍이 지나가고(2016)' 등 유명한 작품 30여편을 직접 번역한 작가 강민하를 초청해 감독과 배우들의 목소리를 한국어로 전하는 작업을 들을 수 있다.

▲언어 자격증부터 교육·취업 유학까지... 실무자에게 직접 듣는 상담회

'일본 유학·JET 프로그램·JLPT·EJU·워킹홀리데이 상담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동국대 WISE캠퍼스 도서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일본의 대학(원), 전문학교, 일본어학교 등 각 교육기관 입학에 대한

상담, 일본정부 문부과학성 장학금제도, EJU(일본유학시험), JLPT(일본어능력시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JET프로그램에 대해 경험자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유학, 취업, 워킹홀리데이 등 비자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일본 차(茶) 문화의 꽃 '다도'를 만나다

일본 다도(茶道) 시연 및 시음회는 10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두 번을 걸쳐 동국대 WISE캠퍼스 도서관에서 열린다.

'다도'(茶道)는 일본에서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는 예절의 방식을 뜻하지만 단순한 차를 끓이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목적이나 사고방식, 차도구의 아름다움까지 감상하는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

이날 일본 다도 최대 유파의 하나인 '우라센케(裏千家)'를 중심으로 다도를 통해 일본의 맛과 멋의 정신세계를 배울 수 있도록 시연과 함께 말차를 시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스카 츠요시 총영사관은 "경주에서 재팬위크 행사를 통해 한발 먼저 일본과의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길 크게 기대한다"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송순현 기자dongh0311@naver.com

'한복 원단'과 '가족'의 화려한 콜라보

한복진흥원·천연염색 가족연구회 내달 30일까지 한복·패션소품전 전통·현대 재해석 통한 문화 널리

한국한복진흥원 전시홍보관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족 그리고 한복, 명주를 품은 가족'을 주제로 하는 '한국천연염색 가족연구회 제4회 회원전 및 참여작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에코프린팅 기법과 다양한 염색 방식을 활용해 한복의 대표적인 원단인 명주와 가족으로 만든 한복 및 패션 소품을 전시한다.

천연염색에 접목한 에코프린팅은 식물의 잎, 꽃 등을 염색하고자 하는 천이나 가족에 밀착시킨 후 열을 가해 식물의 모양이나 색상을 천과 가족에 인쇄 하듯 남기는 기술이다.

이번 전시는 '한국천연염색 가족연구회'에서 주관하며 지난 2021년 창립 전시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네 번째 전시를 준비했다.

전시가 시작되는 지난 26일 한국한복진흥원 전시홍보관에서 전시 오프닝 행사가 열렸으며 이날 가족 공예 체험행사과 SNS에 인증샷을 올리면 천연염색 가족 키링(Key ring)을 제공하는 이벤트, 문화상품 판매 부스 운영 등 다양한 문화 행사로 호응을 얻었다.

박후근 원장은 "이번 전시는 천연염색, 명주, 가족을 조화시킴으로써 전통 한복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한복의 현대적 재해석과 확장을 모색하는 전시회"라며 "한복이 천연염색과 가족을 만나 색다른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정복 연구회장은 "한국한복진흥원이라는 뜻깊은 장소에서 이번 전시회를 열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한복, 명주와 가족 그리고 천연염색이 함께 발전하는 데 연구회가 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창원 기자changwan12@naver.com

14년 인기몰이 창작어린이뮤지컬 공짜

내달 2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서 조선 대제학 김안국 모티브 극본 작가 권오단·극단 커튼콜 공연

창작어린이뮤지컬 '책벌레가 된 명칭이 장원급제 대소동(극단 커튼콜)'이 다음달 2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옹부홀에서 공연된다.

지난 2010년 천연을 시작으로 어린이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이 작품은 그 인기로 힘입어 14년째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 중종 때 대제학을 지낸 실존인물 김안국(金安國, 1478-1543년) 선생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 '책벌레가 된 명칭이 장원급제대소동'은 권오단 작가가 책과 극본을 썼으며 안동의 예술인

들로 구성된 '극단 커튼콜'이 공연을 맡았다.

'책벌레가 된 명칭이 장원급제대소동'은 안동의 특산물인 생강과 간고등어를 재미있게 녹여내 지역 특산물 홍보도 겸하고 있다.

지난해 경북도청 동라관에서 공연은 700석 객석을 2회나 가득 채워 변함없는 인기를 보여줬다. 그 인기에 힘입어 올해는 장소를 바꿔 다음달 2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옹부홀에서 공연될 예정이며 전석 무료입장이다.

'책벌레가 된 명칭이 장원급제대소동'은 지역에서 14년째 공연되고 있는 장수프로그램으로 극의 재미와 높은 인기로 매년 만석을 기록하며 지역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명수 기자oms727@nate.com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고분군 출토 유물 공개

시, 복원 정비 발굴 조사서 출토된 금령총·천마총 유사 형태 금동관 관련 성과 공개 현장설명회 가져

경산시는 사적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고분군'의 복원 정비를 위한 발굴조사에서 경주 금령총과 천마총 출토 금동관과 유사한 형태의 금동관이 출토됨에 따라 30일 발굴현장에서 그 성과를 공개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굴조사는 2024년도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임당동 고분군의 사적 지정구역 내 보존 방안 마련이 시급한 무덤 무덤들이 노출된 고분(이하 노출고분)에 대해 복원 정비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경산시와 경북 문화재청 문화유산원(원장 박재영)이 지난 4월 업무협약을 맺어 진행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노출고분은 돌로 관을 안치하는 방(현실, 玄室)을 만들고 판석과 점토를 사용해 봉토를 조성해 만든 석실분(石室墳)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지가 과거 마을 형성 등으로 원래 지형이 많이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고분군 내 조사된 석실분 중 구조와 형태가 가장 양호하게 남아 있었다.

노출고분의 현실은 길이 330cm, 너비 245cm의 장방형 형태로 벽은 회를 발라 마감했는데 벽의 높이는 약 2m로 안쪽으로 기울어 천정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실로 들어가는 출입시설(연도)은 남벽의 왼쪽편에 만들었으며 봉분은 직경 15m정도로 추정된다.

연도의 맞은편에 마련된 관대(棺臺)에서 금동관을 비롯해 금동제 허리띠, 귀걸이, 팔찌, 반지 등 무덤 피장자(被



葬者)의 위세를 보여주는 착장 유물들이 출토됐다. 특히 금동관은 2개의 잇가지 세움장식과 3개의 맞가지 세움장식 및 관테로 구성된 있는데 맞가지 세움장식이 4단인 것이 특징이다. 지난 1982년부터 진행된 다수의 임당동과 조영동고분군 발굴조사로 그동안 유적에서 금동관이 10개체 이상 출토됐지만 모두 3단의 맞가지 세움장식을 가진 금동관으로 4단 맞가지 세움장식 금동관은 이번이 처음 출토된 것이다.

이번에 출토된 금동관은 6세기 초 대표 금관인 국보 천마총 금관, 보물 경주 금령총 금관과 형태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금동관 중에서는 전(傳) 경북 출토 금동관(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을 제외하고 유적에서 출토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함께 출토된 가는고리 귀걸이의 금제 장식 역시 출토 사례를 찾기 힘든 희귀 자료로 삼국시대 경산지역 장신구의 독자성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되는 만큼 압록국의 고분 문화연구와 지역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가장 오래된 정몽주 영정 "고향 영천으로"

92년 당시관리 어려위 경주박물관서 시립박물관 건립에 따라 재이관 마쳐

영천시는 지난 28일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 중이던 보물 '인조기사묘본정몽주영정(仁祖己巳摹本鄭夢周影幀)' 1점을 임고서원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인조기사묘본정몽주영정'은 현존하는 정몽주 영정 중에서 가장 오래됐으며 지난 1991년 12월 16일 보물로 지정됐다. 영정은 가로 98cm, 세로

169.5cm의 크기로 조선시대 영의정 등을 지낸 김욱(金旭, 1580-1658년)이 그렸다고 전해진다.

의자에 앉은 전신상의 모습이며 영정의 오른쪽 아래에 쓰인 '송정기사묘본'을 통해 1629년(인조 7년)에 그려진 것으로 파악된다.

영정은 지난 1992년 6월 8일 보관·관리의 어려움으로 국립경주박물관에 기탁됐으나 최근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이 구체화되면서 32년 만에 영천으로 돌아오게 됐다.

소유자인 임고서원의 기탁 해지 요청

에 따라 무진동 차량으로 수장고까지 안전하게 운송됐다.

이날 최기문 시장은 "시립박물관 건립에 힘입어 영천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돌아와 기쁘다. 영천시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시립박물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립박물관은 오는 2025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며 영천시는 박물관의 연구, 전시,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연중 기증·기탁받고 있다. 기증과 기탁에 관심 있다면 문화예술과 박물관건립추진팀



(054-330-68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석필 기자jst92920@hanmail.net

■ 특별기고

'강물순환공법' 이 답이다

김휘태
전 안동시 풍천시장



30년간이나 고착된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김해, 양산 등 낙동강 유역의 맑은 물 공급사업을 성공시킬 교육자책으로 이제는 '강물순환공법'에 방점을 찍을 때이다. 울산시에서 반구대 암각화 보호를 위해 사연댐 수위를 낮추려 해도 대구로 보낼 운문댐 물을 받을 수 없어 비상이 걸려있고 부산, 경남도 식수오염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

대구 취수원 이전을 해평에서 안동댐으로 바꾸려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연말에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상류지역 취수원 다변화사업' 변경으로 심의·의결되면 대구로 오던 운문댐 물을 울산으로 돌려줄 수 있다지만 무리한 변경과 안동댐 오염으로 정책적 추진이 될지 미지수이며 46만으로 17만이나 부족한 것도 문제다.

부산 취수원 다변화 사업도 경남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고착된 상태이다. 황강이나 남강 취수는 물론 강변여과수와 지리산 등 식수전용댐도 모두가 농업용수와 환경오염 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창원, 김해, 양산 등의 경남지역도 낙동

강 독성 녹조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강구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으로 1300만명의 건강과 생명이 절체절명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대구는 지난 1991년부터 무려 10번이나 중금속이나 유해화학물질에 오염되는 사고를 당하고 있으며 부·울·경 지역 또한 날이 갈수록 오염도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멀지 않아 인명피해가 현실화 될 수 있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론이나 원론적으로는 낙동강 물을 맑게 하는 제자연화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낙동강유역 정화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며 산업단지 폐수는 정화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으므로 취수원은 산업단지 상류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가장 현실적인 '강물순환공법'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떠한 해결 방법도 없다.

차선책으로 강물을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맑은 물 공급이 가능하며 상류지역 시·군에서 지방광역 상수도사업 요금수익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면 상·하류 상생발전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난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을 해오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 그 원동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지혜와 하면 된다는 의지의 한

국민 정신이었다. 서산간척사업에서 폐선박 물막이를 하고 경부고속도로와 자동차·유조선을 만들었으며 리비아 대수로와 사막에서 벼농사를 지어낸 세계의 기적은 책에도 없는 현장의 아이디어였다.

책에 있는 사례들도 누군가의 경험과 지혜로 만들어진 것인데 전례가 없는 '강물순환공법'이라고 간과하고 친환경적인 원론만 생각하면 기적을 일굴 새역사 창조는 없다. 안동댐에 중금속 퇴적과 독성 녹조는 엄연한 사실이고 산업공단의 유해화학물질 불시오염 사고는 불가항력일 수밖에 없으며 부산지역의 다변화 사업도 민폐임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선 강물 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낙동강 제자연화를 이루는 것이 합리적이다. 무엇보다 안동댐의 중금속 제거와 산업폐수를 피해 취수원을 맑게 흐르는 상류 지점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제자연화의 요체는 오염원 제거와 보 철거로 강물이 자연유하로 자정작용이 돼야 한다.

강물 순환 MASTER PLAN을 보면 대구 취수원은 구미-안동 구간에서 1일 100만t을 구축하고 부산 취수원은 남강과 황강의 상류에 100만t씩 나뉘어 1일 200만t을 구축하면 강물이 줄지 않고 농민 피해도 없다.

그러면 대구·경북 신공항과 울산(반구대), 창원, 김해, 양산까지 낙동강 유역의 모든 식수 문제가 녹듯이 사라질 것이다.

■ 독자기고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

장정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최근 몇 년간 정부와 행정기관들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적극행정'이다.

적극행정은 단순히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국민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총주시 유튜브 운영을 맡아 약 7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공무원이 연봉이 두배인 곳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도 거절한 이유에 대해 "제가 근무하는 총주시를 되게 좋아한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인 총주

시를 알리는 일과 홍보업무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 시대의 공무원에게 바라는 것은 공무원이 맡은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창의적인 시각으로 연구하고 실행하는 능동적인 태도이다.

이는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공무원이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다.

이에 따라 우리 병무청에서도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의무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첫째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처리 기한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개선했다. 병역의무자가 돌봐야 할 가족이 '영유아, 고령자, 장애인 등'만 있는 경우 우선처리하며 기간은 기존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더욱 배려하고 생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했다.

둘째 입영일자 연기에 있어서도 최근 추세를 반

영했다.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병역의무자의 경우에 기존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 세계화 및 교육환경 변화까지 반영해 병역의무자의 불만 해소에 기여했다.

셋째 군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대구를 비롯해 전국 11개의 병역진로설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자체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 결과 진로상담 시 자격, 전공별로 맞춤형 상담정보를 즉시 제공해 상담 및 대기시간을 단축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무청은 국민의 하나의 사소한 지적, 요구, 불만도 지나치지 않고 관련 규정과 선례가 없더라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선두에서 보다 공정하고 발전적인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 행정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 사설

노인 일자리 활성화 고용의 질 뒷받침 돼야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노인 일자리를 찾는 어르신이 많이 늘었다. 노인일자리란 초고령의 저소득 노인 뿐만 아니라 노후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최상의 노인복지의 취미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특히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 생활과 소득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노인 일자리를 크게 늘렸다.

노인 일자리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수 등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부의 사업으로 정부는 노인복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를 오는 2027년에 노인 인구의 10%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해 수요에 대응하면서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를 전체 노인일자리 40% 이상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도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노인 일손은 넘치는데 일자리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공공일자리사업의 내용과 소득이 빈약한 것도 문제다.

정부는 고령자 생계비 지원 목적으로 '노인 일자리 연 100만 개 만들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학교 앞 길 안나갈이 저렴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억지로 짜내는 일이 적지 않다.

그래도 연간 2조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된다. 아울러 기업들의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해 퇴임하는 핵심 인력을 재고용하는 제도를 확대시켜 노인 일자리가 침식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도 지난 2020년부터 퇴직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최장 3년간 1인당 월 30만원씩 총 1080만원의 '계속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적은 부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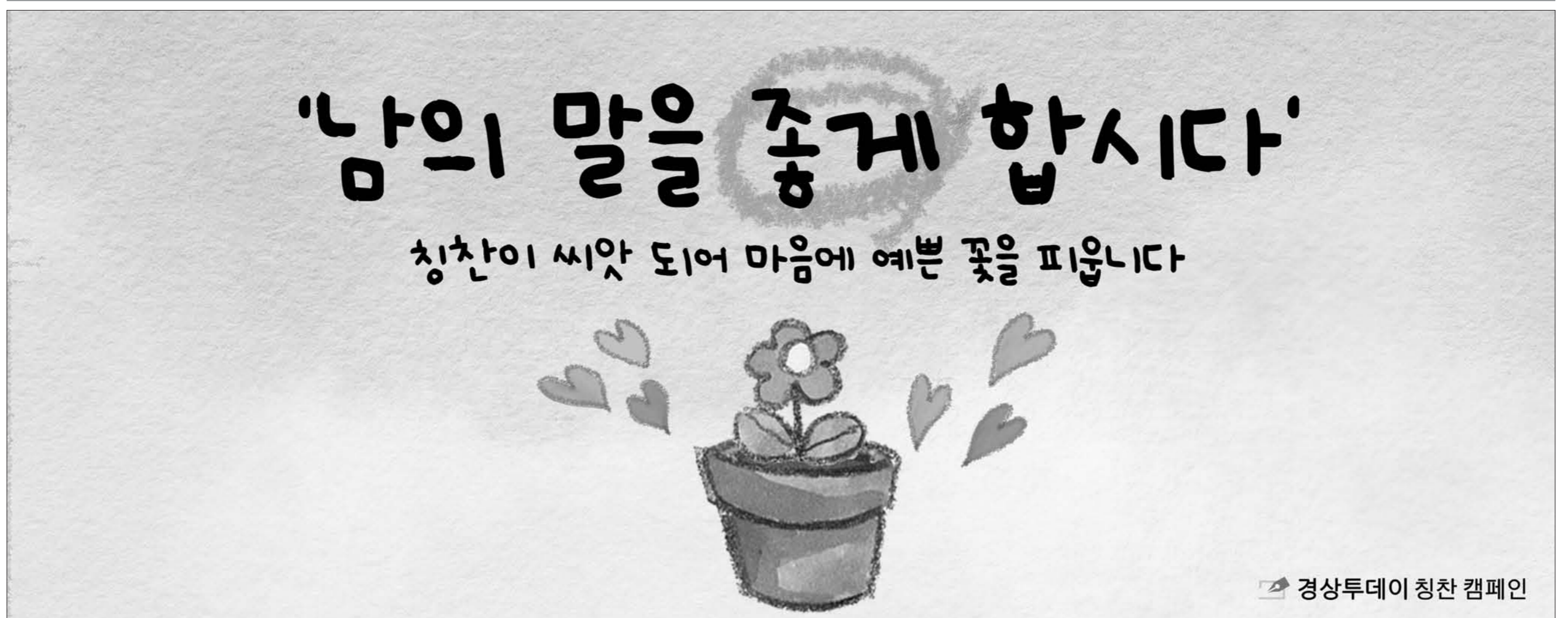
지난해 이 장려금을 받은 재고용 근로자는 7888명뿐이었고 정부 지원 총액도 284억원에 그쳤다.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퇴직자 전원을 재고용해야 하고 최소 근무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다.

기업이 재취업 희망자 중 일부만 선별해 재고용해도 장려금을 주는 등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올려서 '퇴직 후 재고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퇴직 근로자의 재고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노인 일자리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노인에게 채울 수 있어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가00032 http://www.gyeongsangtoday.com	
발행·편집인 이승협		편집국장 박성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문 제 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회부 <구내>1006	정경부 <구내>1008	F A X (054)748-3363	
구독·광고·제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주시 양정로 235(동천동) 약양빌딩 8층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당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맞이 | JAPAN WEEK
2024경주재팬위크

2024년 **11월 1일~10일**
 경주시 일원

경주 JAPAN WEEK 일정

행사	장소	시간	일정											
			1일(금)	2일(토)	3일(일)	4일(월)	5일(화)	6일(수)	7일(목)	8일(금)	9일(토)	10일(일)		
강 연	오스카 츠요시(大塚 剛) 주부산일본국총영사 강연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원효관(4층) 글로벌ACE홀	2시~3시											
	강민하 일본영화 자막 번역가 초청 강연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원효관(4층) 글로벌ACE홀	2시~3시30분											
공 연	'한일가왕전' '한일토크쇼' 출연 아즈마 아키(東 亜樹) 콘서트	경주예술의전당 원화홀	5시~6시30분											
워크숍	일본 다도 시연 및 시음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도서관(1층) INNO EDU CENTER	1회: 1시~2시 2회: 4시~5시											
상 담	일본유학·JET프로그램·JLPT·EJU·워킹홀리데이 상담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도서관(1층) INNO EDU CENTER	2시~4시											
전 시	우키요에(浮世絵)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斎)전	항리단길 생활문화센터 갤러리	10시~6시											

주최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경주시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주관 한일문화포럼

후원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동우화인켄주식회사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문의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공보문화부(Tel. 051-410-6125~6)

※전 행사 참가무료(아즈마 아키 콘서트는 초청자, 다도 시연·시음회는 사전 신청자에 한함)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홈페이지 QR